

석사학위논문

마리 로랑생과 알폰소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연구

2016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수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마리 로랑생과 알폰소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art make-up applying romantic image of
Marie Laurencin & Alfons Mucha's works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수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마리 로랑생과 알폰소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A study on the art make-up applying romantic image of
Marie Laurencin & Alfons Mucha's works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수정

이수정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 전공
이 수 정

본 연구는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회화 속에 표현된 로맨틱 이미지와 아트메이크업을 접목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는 여성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표현하던 시대적 주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존감, 고귀함을 표현한 작가였다. 이에 두 사람의 작품 중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 문헌과 NCS 표색계를 통한 분석으로 조형적 특성과 색채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로맨틱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는 ‘사랑스러운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몽환적 이미지’가 나타났고, 알폰스 무하 작품에서는 ‘관능적 이미지’, ‘장식적 이미지’, ‘이국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 작품 속의 6가지 로맨틱 이미지를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리 로랑생 작품 속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화려하고 몽환적인 로랑생 특유의 색채를 중심으로, 선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색의 중첩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로랑생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응용하였으며,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풍요롭고 장식적인 문양, 꽃과 식물을 유기적인 곡선으로 화려하게 표현하는 무하 회화

의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응용하였다.

이 두 작가의 작품 속 모티브를 연구자의 방식으로 변형하여 아트 마스크와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하였고, 각각의 조형요소를 핸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성을 시도하는 등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모색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 5점,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6점 총 11점의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와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접목하고 아트 마스크와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을 시도하여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하나의 이미지를 마스크와 인체 등 표현 대상을 달리하여 다른 형태의 작품도 제작해 보았다. 이러한 순수 예술 작품의 조형적, 색채적 분석을 통한 이미지 분석과 작품 응용 연구가 지표가 되어 아트 메이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재료 및 기법 적용을 통한 독창적인 작품 제작과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요어】 마리 로랑생, 알폰소 무하, 회화, 아트메이크업, 로맨틱이미지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2
II. 생애 및 작품 세계	3
2.1 시대적 배경	3
2.2 마리 로랑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	5
2.2.1 마리 로랑생의 생애	5
2.2.2 마리 로랑생의 작품 세계	10
2.3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 세계	20
2.3.1 알폰스 무하의 생애	20
2.3.2 알폰스 무하의 작품 세계	25
III.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회화속의 로맨틱 이미지 분석	36
3.1 마리 로랑생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	36
3.1.1 마리 로랑생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36
3.1.2 마리 로랑생 회화속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적 특성	38
3.2 알폰스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	45
3.2.1 알폰스 무하의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45
3.2.2 알폰스 무하의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적 특성	47

IV.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를 통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54
4.1 작품의 제작 의도 및 제작 방법	54
4.2 작품 제작 및 설명	55
4.2.1 작품 I <순수 I, II>	55
4.2.2 작품 II <그리움 I, II>	64
4.2.3 작품 III <열망 I, II>	73
4.2.4 작품 IV <풍요 I, II>	82
4.2.5 작품 V <꿈 I, II>	91
V. 결 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 목 차

<표 1> 마리 로랑생 회화의 조형적 특징 (본 연구자 작성)	37
<표 2> 마리 로랑생 작품 ‘초상화’의 NCS 색채 분석	40
<표 3> 마리 로랑생 작품 ‘꽃다발’의 NCS 색채 분석	41
<표 4> 마리 로랑생 작품 ‘꽃을 든 어린 소녀’의 NCS 색채 분석	42
<표 5> 마리 로랑생 작품 ‘꽃’의 NCS 색채 분석	43
<표 6> 마리 로랑생 작품 ‘키스’의 NCS 색채 분석	44
<표 7> 알폰스 무하 회화(포스터, 장식 패널)의 조형적 특징	45
<표 8> 알폰스 무하 작품 ‘여름’의 NCS 색채 분석	48
<표 9> 알폰스 무하 작품 ‘과일’의 NCS 색채 분석	49
<표 10> 알폰스 무하 작품 ‘금발 머리’의 NCS 색채 분석	50
<표 11>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색채적 특성 (본 연구자가 작성)	52
<표 12> 마리 로랑생 작품 속 응용 모티브 및 색채	55
<표 13> 마리 로랑생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55
<표 14> ‘순수 I’의 작품 제작 과정	56
<표 15> 순수 I의 NCS 색채 분석표	57
<표 15> 순수 II의 NCS 색채 분석표	60
<표 16> 마리 로랑생 작품 속 모티브, 색채와 응용 모티브	63
<표 17> 마리 로랑생 작품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	63
<표 18> 그리움 I 작품 제작 과정	65
<표 19> 그리움 I의 NCS 색채 분석표	66
<표 20> 그리움 II의 NCS 색채 분석표	69
<표 21>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73
<표 22>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73
<표 23> 열망 I의 작업 순서 및 내용	74

<표 24> 열망 I 의 NCS 색채 분석표	77
<표 25> 열망 II 의 NCS 색채 분석표	80
<표 26>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82
<표 27>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82
<표 29> 풍요 I 작업 순서 및 내용	83
<표 30> 풍요 I 의 NCS 색채 분석표	84
<표 31> 풍요 I 의 NCS 색채 분석표	87
<표 32>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90
<표 33>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91
<표 34> 꿈 I 의 NCS 색채 분석표	92
<표 35> 꿈 II 의 NCS 색채 분석표	96

그 립 목 차

<그림 1> 옥조 속의 누드 1936년몽크	4
<그림 2> 몽크 잿더미	4
<그림 3> 클림트 에디트	4
<그림 4> 마리 로랑생	5
<그림 5> 자화상	6
<그림 6> 자화상	6
<그림 7> 자화상	6
<그림 8> 아폴리네르와 친구들 1909년	7
<그림 9>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7
<그림 10> Edward Wasserman 1935년	9
<그림 11> Nana 1927년	9
<그림 12> Edward Wasserman 1935년	9
<그림 13> 세잔느 레마르크 만	11
<그림 14> bouquet 1905년	11
<그림 15> Fleurs 1907년	11
<그림 16> Vase of Rose 1908년 마리 로랑생	11
<그림 17> 에스타크의 집들 1908년	12
<그림 18> 만돌린과 과일접시	12
<그림 19> Poetess MargueriteGillot 1912년	13
<그림 20> The Fan 1912년 마리 로랑생	13
<그림 21> Baccante 1911년	13
<그림 22> 아비뇰의 처녀들 1907년 피카소	14
<그림 23> 어린 소녀들1910-1911년	14
<그림 24> Artemis 1908년 마리 로랑생	14
<그림 25> Girl's head 1915-1918년	15
<그림 26> The Fan 1919년	15
<그림 27> Girl in a White Hat with Black Feather 1915년	15

<그림 28> JeuneFemme au chien 1916년 마리 로랑생	16
<그림 29> The Kiss	16
<그림 30> Portraits1916년 마리 로랑생	16
<그림 31> Jeune fille a guirlande 1935년	16
<그림 32> Helene 1936년	16
<그림 33> Nana 1927년	16
<그림 34> Lenaand the Swan 마리 로랑생	17
<그림 35> Leaning Woman	17
<그림 36> Bathers	17
<그림 37>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삽화 1930년	18
<그림 38> 발레 의상 디자인 1930년	18
<그림 39> mademoisellecoco chanei 1923년마리 로랑생	19
<그림 40> Young woman with the dog but the Marie 1922년	19
<그림 41> 시몬 로랑생의 초상	19
<그림 42> 알폰스 무하	20
<그림 43> 알폰스 무하 가족	20
<그림 44> 알폰스 무하의 이반치체 생가	20
<그림 45> 1881년 링 극장의 화재	21
<그림 46> 에곤 쿠엔 벨라시 백작의 강데성	21
<그림 47>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23
<그림 48> 1904년 4월 3일자 뉴욕 데일리 1면 뉴스	23
<그림 49> 슬라브 서사시1(슬라브족의 기원)	24
<그림 50> 슬라브 서사시3(예배로의 인도)	24
<그림 51> 사라 베르나르	26
<그림 52> 지스몽다 1894년 알폰스 무하	27
<그림 53> 살롱 데 상 전시회 포스터 1896년	27
<그림 54> 욕(Job), 포스터의 대가들의 도판 202 1900년	27
<그림 55> 포스터의 대가들의 전면 삽화 1897년	27
<그림 56> 페르세포네 1874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28

<그림 57> 백일몽(Rêverie) 1897년 알폰스 무하	28
<그림 58> 사계 (Four Season) 1896년	28
<그림 59> 사계(Four Season) 1900	29
<그림 60> 비잔틴 두상 'Brunette and Blonde' 알폰스 무하	29
<그림 61> 보석들	30
<그림 62> 장식 도큐먼트 전면삽화	31
<그림 63> 파리 만국박람회	31
<그림 64> 알폰스 무하	32
<그림 65> 뤼겐 섬의 스반토비트 축제 1912년	33
<그림 66> 슬라브 서사시 NO.20 1926년	33
<그림 67> 슬라비아 1907년	34
<그림 68> 마리 로랑생 작품 배색 이미지 스케일	37
<그림 69> 마리 로랑생의 작품 이미지 스케일	38
<그림 70> 알폰스 무하 작품 이미지 스케일	47
<그림 71> 알폰스 무하 작품 배색 이미지 스케일	47
<그림 72> 순수 I (아트마스크 디자인)	58
<그림 73> 마스크의 우측 디테일	59
<그림 74> 마스크의 좌측면	59
<그림 75> 마스크의 좌측 디테일	59
<그림 76> 마스크의 우측면	59
<그림 77> 순수 II(아트메이크업 디자인)	61
<그림 78> 순수II 정면	62
<그림 79> 순수II 우측면	62
<그림 80> 순수II꽃 디테일	62
<그림 81> 그리움 I (아트마스크 디자인)	67
<그림 82> 작은 마스크 디테일	68
<그림 83> 모티브 디테일	68
<그림 84> 그리움 I 의 좌측면	68
<그림 85> 마스트의 정면 디테일	68

<그림 86> 그리움 II(아트메이크업 디자인)	70
<그림 87> 그리움 II의 좌측면	71
<그림 88> 그리움 II(아트메이크업 상부)	71
<그림 89> 열망 I (아트마스크 디자인)	76
<그림 90> 열망 I 의 정면	77
<그림 91> 열망 I 의 우측면	77
<그림 92> 마스크의 좌측 디테일	77
<그림 93> 마스크의 우측 디테일	77
<그림 94> 열망II-1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79
<그림 95> 열망II-2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80
<그림 96> 풍요 I (아트 마스크 디자인)	85
<그림 97> 정면 디테일	86
<그림 98> 풍요 I 의 측면	86
<그림 99> 좌측면 디테일	86
<그림 100> 우측면 디테일	86
<그림 101> 풍요II-1	88
<그림 102> 풍요II-1오른편 디테일	88
<그림 103> 풍요II-1	88
<그림 104> 풍요II-2	89
<그림 105> 풍요II-2좌측 디테일	89
<그림 106> 풍요II-2 우측 디테일	89
<그림 107> 꿈 I (아트 마스크 디자인)	93
<그림 109> 꿈 I 좌측면 디테일	94
<그림 108> 꿈 I 우측면 디테일	94
<그림 110> 꿈II	95
<그림 111> 꿈II우측면 디테일	95
<그림 112> 꿈II 좌측면 디테일	95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메이크업(makeup)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를 외형적 형태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현대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각종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기존의 고정 개념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메이크업의 표현 방식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면서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이라는 종합예술의 장르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트메이크업은 작가의 내면에 내제되어있는 미의식과 독창성을 외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인체에 다양한 소재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법들을 응용하여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순수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에 나타난 색채와 조형적 특성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재해석되어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다. 회화와 아트메이크업의 접목은 기존의 획일화된 작품구성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감각으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옴으로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세기 회화의 가장 큰 흐름이었던 입체파와 야수파의 남성 중심 화단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사했던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의 회화와 20세기 전후 유럽의 예술 사조였던 아르누보의 대가 알폰스 무하 회화의 특성을 고찰하여 모티브를 재구성하고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접목시킴으로써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 및 전개를 시도하여 작품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함이다. 특히 마리 로랑생 회화의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색채적 특성과 풍요롭고 장식적인 문양, 부드러운 색감, 꽃과 자연에 둘러싸인 화려하고 몽환적인 여인을 매혹적으로 표현하여 ‘무하 스타일’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나간 알폰스 무하 회화의 색채적 특성과 조

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보다 풍부한 예술적 표현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과 예술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그들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알아본 후 이들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 및 기법 등을 분석하여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 회화의 분석은 국내·외 전문서적,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하고, 회화 속에 나타난 형태, 색채 등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과 색채적 특성을 이미지 스케일과 NCS표 색계에 의한 색채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넷째, 회화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의 형태와 색채를 응용하고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 활용 등을 통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 한다

아트메이크업의 재료에는 기본 메이크업 재료(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립스틱 등)와 도구(브러시, 분첩 스펀지 등), 아쿠아 컬러(인체용 수성 물감), 라이닝 컬러(아트 메이크업용 컬러 파운데이션의종류), 아크릴 물감 등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EVA(Ethylene +Vinyl+Acetate의 약자, 질감, 단열성, 보온성이 뛰어난 건축자재이나 유연성과 발색력이 뛰어나 아트 메이크업의 오브제 소재로 많이 쓰임), 스펅글, 한지,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작품은 종이 재질의 마스크와 플라스틱 재질의 마스크를 사용한 아트 마스크 5작품과 얼굴과 가슴까지로 표현 영역을 정하여 인체에 표현한 아트메이크업 6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II. 생애 및 작품 세계

2.1 시대적 배경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현대적인 삶의 복잡한 갈등과 모순들에 의해 예술에서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아일랜드의 소설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A. Aloysius Joyce)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소설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소설가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야기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울프 (Adeline Virginia Woolf)도 의식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여성의 진실 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남성의 시각에 의해 변형된 여성의 모습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 전의 시대에는 금지된 일이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작가들은 사고의 전환기를 겪게 되었다. 조셉 콘래드(Jozef Konrad Nalecz Korzeniowski)는 유럽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둠의 핵심’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는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전락시키는 산업 사회의 병폐를 신랄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미술계에서도 시도되었는데 이를 회화로 표현한 사람이 세잔느(Paul Cezanne)였다. 세잔느는 사물을 단일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원근법을 해체하여 그 이면을 새롭게 보고자 노력하였고 이것이 ‘인상주의’의 시작이 되었다. 음악에서도 위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 졌는데 클로드 드뷔시(Achille Claude Debussy)는 산에서 책을 보다가 영감을 받아 ‘바다’라는 곡을 작곡하였다. 이는 보여 지는 모습 그대로 사물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작곡가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결과였다. 또한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는 이백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대지의 노래’라는 가곡집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근법을 극복하고 새로운 화풍을 시도했던 세잔느,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문명권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해 다양

한 예술적 영감을 얻고자 했던 고흐(Vincent van Gogh),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폴 고갱(Eugène Henri Paul Gauguin)등의 노력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근대 예술가들의 사유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네이버캐스트).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남성 위주의 것들이었고 여성들의 지위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미술이 종교적, 도덕적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율성을 되찾고 이로 인해 순수미술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회화 속에 표현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이미지는 여전히 남성 주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성적대상의 존재로만 표현하거나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에 대한 무관심, 몰이해, 지배욕, 소유욕 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최 태만, 2008).

<그림 1>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 1867~1947)의 ‘욕조 안의 누드(Nu dans le bain)’ 연작 가운데 한 점이다. 보나르는 욕조 안의 누드라는 주제를 1925년부터 1936년 사이에 연작으로 여러 점 남겼다. 욕조 안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여인의 나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는듯한 각도로 표현한 이 작품에서는 남성의 시선에서 보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미지를 볼 수 있다(네이버).

<그림 2>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잿더미는 여성에게 거절



<그림 1> 욕조 속의 누드 1936년
피에르 보나르

<http://cafe.naver.com/artsky201/782>



<그림 2> 뭉크
잿더미 1894년

<http://egloos.zum.com/shaind/v/5618633>



<그림 3> 클림트
유디트 1909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당하는 남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비탄에 젖어 절규하는 남성의 모습과 이에 무관심한 여성의 모습을 대비시켜 악마적인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에로스(eros, 사랑)와 타나토스(tanathos,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여성의 성적 매력과 벗어날 수 없는 마력을 그렸던 클림트(Gustav Klimt, 1862~ 1918)도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Judith) <그림 3>에서 유디트는 영웅이나 애국자가 아니라 남성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시대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존감, 고귀함을 표현한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작품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마리 로랑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

2.2.1 마리 로랑생의 생애

1) 마리 로랑생의 출생과 성장기(1883~1904)



<그림 4>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lover7?Redirect=Log&logNo>

마리 로랑생은 1883년 10월 31일 프랑스 파리의 샤브로르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마리 로랑생의 어머니 멜라니 폴린 로랑생(Paulin Melanie Laurencin 1861~1913)은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어촌 출신으로 스무 살 무렵 파리로 상경, 가정부와 식당 종업원을 거쳐 수놓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았다. 아버지는 소가 페른느(Peronne)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파리의 세무 감사관을 지낸 알프레드 투레(Alfred Toulet)였다. 그는 부유한 남자로 유력한 가문의 여자와 결혼한 채 멜라니 폴린과 이중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사생아인 마리를 딸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1912년까지 프랑스는 나폴레옹 1세법에 의해 사생아인 경우 부권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금지 되었다. 즉 간통죄에 속하기 때문에 1910년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리 로랑생의 사촌이 쓴 글에는 로랑생이 마리 투레(Marie Toulet)라고 씌어져 있었고 투레 또한 마리 로랑생이 자신의 딸임을 가족들에게 고백했었다. 1891년 아버지 투레가 죽은 이후로 로랑생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멜라니 폴린 역시 죽을 때까지 투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다른 출생과 성장기는 로랑생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직업상 마리 주변에는 늘 아름다운 명주실이나 고급스런 레이스, 단추, 여러 가지 양재용의 장식천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로랑생의 심미안을 키워주는 소재가 되었다. 어머니는 로랑생에게 독서와 음악적 소양을 길러주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사생아라는 성장과정과 차가운 성격을 지닌 자신과의 생활에서 오는 딸의 고독한 슬픔을 감싸주지는 못 하였다. 마리 로랑생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로랑생의 어머니는 딸이 안정된 장래가 보장되는 여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해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강습에 다니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의 격려로 1904년 파리의 데생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로랑생은 학교에서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배웠고 가난한 미술학도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모델 섭외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자화



<그림 5> 자화상

<http://cafe.naver.com/qotthr12/43410>



<그림 6> 자화상

http://www.artic.edu/aic/collections/artwork/23513?search_no=2&index=4



<그림 7> 자화상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상을 많이 그렸다.

2) 바토-라브와르 시절(1905-1913)

파리의 데생학교에서 소묘를 배운 그녀는 브라크의 도움으로 1905년에는 바토-라브아르(Bateau-Lavoir, 세탁선)에 소개되고 그 곳의 일원이 되었다.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 막스 자콥(Jacob Max, 1876~1944) 등을 위시한 전위적 화가 및 시인들이 가난한 공동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마리는 입체파(Cubism) 시인이자 평론가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났다. 사생아라는 공통점을 지녔던 두 사람은 곧장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예술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정신적 반려자가 되었다. 그들이 바토-라부아르에 출입하던 5년의 기간은 두 사람 모두의 예술적 재능이 만개한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랑을 통해 기욤 아폴리네르는 무명의 미술학도였던 마리 로랑생의 재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후원함 으



<그림 8> 아폴리네르와 친구들 1909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buffalo4_9/80020995311)



<그림 9>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앙리 루소

(Henri Rousseau,
1844~1910)

<http://blog.naver.com/meainsoon?Rdirect=Log&logNo=22>

로서 여류 화가로서의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아폴리네르는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에 대해 “마리 로랑생은 회화라는 중요한 예술에서 완전한 여성적인 미학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몽마르트의 입체파 화가들 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활동했지만 입체파의 화풍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고 주제, 색조, 기법이 매우 여성스러웠기 때문에 ‘피꼬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플로라 그루Flora Gruhl, 1994).

3) 독일인과의 결혼, 망명생활과 그 이후(1914-1956)

지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각자의 강한 개성 때문에 기욤 아폴리네르와의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마리 로랑생은 그와의 이별 후 1914년 독일 화가 오토 폰 벡첸과 결혼하였다. 1914년 7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인으로 국적이 바뀌게 된 마리는 조국인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스페인과 독일에서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던 그녀가 귀국을 허락 받은 것은 1920년 37살이 되는 해였다.

조국인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기욤 아폴리네르는 전쟁 중에 이미 사망하였고, 귀국한 이듬해인 1921년엔 독일에 있는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어 마리에게 남은 것은 망명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과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일뿐이었다. 귀국 후 재기를 노리는 마리 로랑생에게 파리 화단의 반응은 냉담했다. 1922년 3월에 개인전을 하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장 콕토, 레몽 라디게(Raymond Radiguet 1903~1923)등의 작가, 음악가 등 상류 지식인들에게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으며 초상화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인 ‘얇은 색채표현’이 갖는 ‘조형감’과 작품에서 풍기는 미묘한 매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였다.

1924년 발레 ‘암사슴들’의 무대미술을 담당하여 대호평을 얻은 마리 로랑생은 이를 계기로 인테리어 디자인, 무대 예술,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응

용미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 ~1951)의 ‘사랑의 사도’, 자끄 드 라크르텔(Lacretelle Jacques de 1888 ~1985)의 ‘스페인에서 온 편지’, 루이스 캐롤(Carroll, Lewis 1832 ~1898)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 1888~1923)의 ‘원유회’ 등의 삽화와 300점이 넘는 판화제작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펼쳐가면서 여류화가로서의 재능을 입증한 마리는 1935년 7월 30일 ‘레지옹 도뇌르’훈장을 받는다.

여성에게만 있는 특유의 세계, 자기의 감각적인 세계를 창조한 마리 로랑생은 1956년 6월 8일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림 10> Helrna
Rubinstein 1928년
마리 로랑생



<그림 11> Nana 1927년
마리 로랑생



<그림 12> Edward
Wasserman 1935년
마리 로랑생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2.2.2 마리 로랑생의 작품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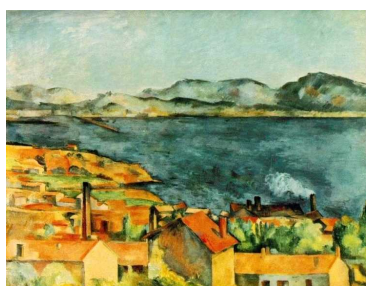
화려한 곡선과 파스텔 색조의 사용, 소박하고 유연한 묘법(描法)과 담홍, 담청, 회백색의 유려하고 감미로운 색채 배합으로 꿈꾸는 듯한 소녀와 섬세한 여성미의 특성을 새롭게 보여줌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마리 로랑생. 그녀가 활동했던 20세기 초반의 유럽은 문화 예술의 격변기였다. 야수주의, 입체주의, 추상주의 등의 새로운 유파가 생겨났고 많은 젊은 화가들이 이 유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마리 로랑생도 그런 젊은 화가 중의 하나였다. 마리 로랑생은 브라크의 소개로 바토 라브와르에 드나들게 되었고 나비파와 입체파의 흐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기욤 아폴리네르는 Our lady of cubism이라며 아방가르드와 큐비스트의 빠질 수 없는 영감이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마리 로랑생의 작품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다. 그녀는 어느 화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는데 마리 로랑생의 작품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사와 그에 따른 그녀의 감정들이었다. 그녀의 사랑, 이별, 결혼, 상처들은 그녀를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하였고 또한 작품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 영향을 준 작가들과 그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통해 독특하게 구축되어가는 그녀만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초기(바토-라브와르시기1905-1913)

마리 로랑생이 처음 시작했던 미술 공부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실용예술이었다. 이 공예학교에서 브라크를 만나게 되었고 마리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한 브라크의 권유로 순수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술학교 시절 마리가 그린 초상화를 본 브라크는 1905년 그녀를 파리 예술가의 집합소인 바토-라브와르(Bateau Lavoir, 세탁선)에 소개하였다. 몽마르트르의 바토-라브와르에는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 위트릴로(Maurice Utrillo, 1883~1955), 막스 자콥(Jacob Max, 1876~1944), 앙드레 살몽(André Salmon, 1881~1969),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

naire, 1880~1919) 등 20세기 예술의 거장들이 이미 새로운 유파를 탄생 시키며 예술의 이념적, 양식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마리 로랑생은 브라크, 피카소 등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하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다.

마리 로랑생은 세잔느의 영향을 받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잔느는 형태의 존재는 이 형태가 빛을 만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13> 세잔느 레마르크 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ld9055&logNo=220095245817>

세잔느의 작품 ‘레마르크 만’ <그림 13>에서 윤곽선은 서로 다른 색채의 접촉에서 생겨난다. 색조는 풍부하고 미묘하게 변화를 보이면서 테두리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윤곽선의 한정은 색 면들의 경계에서 서로 미끄러지듯 접합되거나 뒤섞이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면과 깊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하여 통일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서양미술사학회, 1997).

아래 그림들은 마리 로랑생의 몇 점 안되는 정물 작품이다. 마리 로랑생



<그림 14> bouquet
 1905년
 마리 로랑생



<그림 15> Fleurs 1907년
 마리 로랑생



<그림 16> Vase of Rose
 1908년 마리 로랑생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은 꽃이나 꽃병을 로코코풍의 것처럼 구도를 잡고 그리지만 색채로서 대상을 소묘하고 색채와 색채의 접촉으로 윤곽선을 만들어 내어 여성스러움과 풍성함을 표현하였다. 정물은 마리 로랑생이 세잔느의 영향을 받은 초기 회화 활동의 중요한 주제였다. 과일, 주전자, 꽃과 같은 일상의 것을 주제로 삼으면서 형태, 색채, 문양의 관계와 이러한 주제들의 배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즉 꽃, 과일, 주전자라는 객관적인 사물이 주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는 마리 로랑생의 회화적 특징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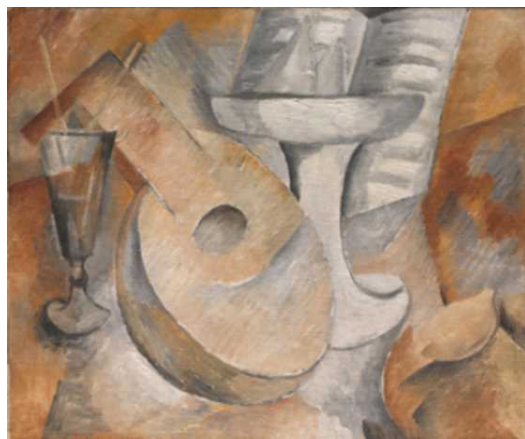
마리 로랑생은 브라크, 피카소와 함께 입체주의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입체주의는 원래 야수주의의 그림을 그렸던 브라크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는데 야수주의에 회의를 느끼던 브라크가 세잔느의 작품 ‘생트 빅투아르’를 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1908년 입방체로 가득한 ‘에스타크의 집들’을 그리게 되었다. 그 후 이 작품을 본 마티스(Henri Emille Benolt Matisse, 1869~1954)가 ‘작은 입방체의 집합’이라고 비평한 데서 ‘입체’라는 말이 생겨났고 미술 평론가 루이 복셀에 의해 입체주의(Cubism)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도 병훈, 2012).

<그림 17> 에스타크의 집(House of L'Estaque)은 분석적 입체파의 초기에 해당하는 특유의 평면성과 차분한 색채, 뒤틀린 원근법이 보인다. 피



<그림 17> 에스타크의 집들 1908년
조르주 브라크

<http://blog.naver.com/mabak2?Redirect=Log&logNo=40036945452>



<그림 18> 만돌린과 과일 접시
조르주 브라크

<http://blog.naver.com/yanghwajin?Redirect=Log&logNo=220177917766>

카소와 브라크는 세잔느 말년의 풍경화에서 크고 작은 편들을 사용하여 사물의 입체적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에 주목했는데 이 작품에서 브라크의 대상들도 크고 작은 색 면들로 해체되고 있다. 브라크는 이런 방법을 그림의 주제뿐만 아니라 배경에까지 적용하여 주제와 배경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또 그는 사물의 색상마저 해체시켜 전체적인 화면을 아주 평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도 병훈, 2012).

<그림 18> ‘만들린과 과일 접시’ 이후에 기타를 비롯하여 만들어진,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많은 화가들이 모티프로 즐기게 되었고 마리 로랑생 역시 그녀의 작품에서 악기를 자주 등장시켰다. 브라크는 이 작품에서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에서 보다 유연한 드로잉과 자유로운 붓놀림에 의해 부드러워진 형태로 전환시키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마리의 초기 인물들은 제 각각 고유의 형태나 색채보다는 그 속에 존재한 공통의 성질, 즉 입체성이나 안정성을 회화적으로 추상화하려 했다. 구형, 방형, 평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단순화하여 서로 공통되는 입체성을 추상화하려는 점이 보인다. 그녀는 넓은 표면을 평평하게 칠했을 때 평 붓의 터치가 화면에 남는 것을 이용하여 한 개의 장방형 색 면과 인접하는 다른 색 면 사이의 비약적인 변화 상태를 보존하면서 그것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묘사하여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했다. 또한 유연한 드로잉과 자



<그림 19> The Fan
1912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irgendwo?Redendwo?Red>



<그림 20> The Poetess
Marguerite Gillot 1912년
마리 로랑생
<http://egloos.zum.com>



<그림 21> Baccante 1911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irgendwo?Red>

유로운 붓놀림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취하는 작품들도 보이고 있다<그림 19, 20>.

<그림 21>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의 누드는 천으로 몸을 가볍게 가리고 있고 뒤로 보이는 삼각형의 모양이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브라크의 영향을 받아 그린 이 작품에서 마리 로랑생은 인물의 색상차를 축소하여 색채의 특징보다는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였는데 그 대상은 기하학적으로 형태로 환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리 로랑생은 피카소의 작품 속 인물들과 비슷한 길고 가느다란 형태의 인물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의 ‘장밋빛 시대’의 영향으로 이후 회색빛이 도는 파스텔 톤의 색채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길고 가는 형태의 인물들과 색채들은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 특징이 되었다.

<그림 22>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이다. 아프리카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작품 속에서 피카소는 고전적인 원근법은 배제하고 인물과 공간을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였으며 인체의 부피감을 평면적인 도형의 결합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3>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도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과 유사한 구도가 보인다. 화면에는 길게 늘어진 몸을 부드러운 천으로 가린 다섯 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다. 두 작품 모두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보각을 나눈 뒤 한 화면에 종합하여 배열하였다. 공간적 배경은 회색을 가미한 어두운



<그림 22> 아비뇰의 처녀들
1907년 피카소
<http://blog.naver.com/mabak2?Redirect=Log&logNo=4003694>



<그림 23> 어린 소녀들 1910-1911년
마리 로랑생
<https://brunch.co.kr/@ethnographer/13?m>



<그림 24> Artemis
1908년 마리 로랑생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

색조로 기하학적인 윤곽만을 표현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다. 두 작품 모두 얼굴 형태가 아프리카 조각상처럼 길고 가늘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마리 로랑생의 초기 작품에서는 입체파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통 입체파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녀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입체파의 화가로도 알려졌었던 마리 로랑생은 차츰 기하학적인 직선을 강조한 입체파의 경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그녀만의 부드러운 색감과 곡선들을 활용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색감과 곡선들은 로랑생의 작품의 특징이 되었다<그림 24>.

2) 중기 (망명시기1914-1921)

1905년 바토-라브와르에서 마리 로랑생은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서로의 개성으로 1912년 결별하게 된다. 실연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1914년 독일 출신 화가 ‘오토 폰 벅첸’과 결혼하게 되지만 한 달 후인 1914년 7월28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그림 25> Girl's head
1915-1918년
마리 로랑생



<그림 26> The Fan 1919년
마리 로랑생



<그림 27> Girl in a
White Hat with Black
Feather 1915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hnani99?Redirect=Log&logNo=1101730362>

독일인과의 결혼으로 적국인 독일인의 신분을 갖게 된 마리는 타의에 의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1915년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외로운 타국에서의 생활과 불성실한 남편의 태도로 마리 로랑생은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작품 속 인물들의 형태는 초기 입체주의의 영향이 남은 듯 가늘고 긴 형태가 보이지만 이는 마리 로랑생의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기 위한 형태적 표현으로 보인다. 색채 또한 초기 작품의 색채보다 회색조가 많이 섞여 차분하면서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기욤 아폴리네르와의 사랑의 실패와 남편에 대한 불신은 마리 로랑생을 동성애자적인 성향을 갖게 만든다. 이런 마리의 내면적인 변화들은 그녀의 작품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회색조가 강한 색채와 우울하고 애수에 젖은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여성들 간의 에로틱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 JeuneFemme au chien 1916년 마리 로랑생

<http://cafe.naver.com/art486/1297>



<그림 29> The Kiss
마리 로랑생

<http://cafe.naver.com/art486/1297>



<그림 30> Portraits(Marir Laurencin,Cecillia de and the Dog Coco) 1916년 마리 로랑생

<http://cafe.naver.com/art486/1297>

3) 후기(귀국이후 1921~1956)

1921년 독일인 남편과의 이혼으로 귀국을 허락받게 된 마리로랑생은 파리로 돌아가고 이후 1930년대까지는 가까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작품 속 인물들의 형태가 중기의 가늘고



<그림 31> Jeune fille a
guirlande 1935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maulou>



<그림 32> Helene 1936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maulou](http://blog.naver.com/maulou?Redirect=Log&logNo=1100805677)



<그림 33> Nana 1927년
마리 로랑생
[http://blog.naver.com/maulou?Redirect=Log&logNo=](http://blog.naver.com/maulou?Redirect=Log&logNo=1100805677)
[1100805677](http://blog.naver.com/maulou?Redirect=Log&logNo=1100805677)

0

긴 형태와는 다른 원만한 형태의 곡선형으로 표현되어 부드럽고 따스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색채에서도 여전히 회색이 가미된 색상이보이지만 선명한 붉은 색 등 이전에 쓰지 않았던 밝고 화사한 색채를 같이 사용해 보다 생기 있고 활기찬 이미지를 주고 있다.

1920년대 이후 마리 로랑생의 작품 경향은 당시 유행하던 입체파에서 벗어나서 독창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동화같이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파스텔 톤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커다란 꽃과 동



<그림 34> Lena and the
Swan 마리 로랑생



<그림 35> Leaning Woman
마리 로랑생



<그림 36> Bathers
마리 로랑생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물, 자연 등의 모티프가 조화를 이루어 환상이나 꿈을 꾸는 것 같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로랑생의 창작 영역은 순수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20년대 파리로 되돌아온 로랑생은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카펫과 벽의 문양, 발레 무대와 의상 등을 디자인하고 동화의 삽화를 그리고 ‘밤의 수첩’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벌이며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펼쳤다.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는 초기의 입체파적인 경향의 작품에서부터 이후의 작품까지 공통적으로 몽환적이고 일러스트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로랑생의 일러스트적인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삽화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의 모험담을 담은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 1832~1898)의 동화인데 테니슨의 오리지널 삽화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로랑생이 처음으로 이작품의 삽화를 그렸다. 루이스 캐롤의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모험담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괴상한 동물들과 신기한 세계, 그리고 수수께끼와 많은 수학적 비유들이 묘사되어 있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로랑생이 스케치처럼 그린 앨리스는 로랑생의 우아하지만 우울한 감성과 함께 동화의 환상적인 특징이 함께 드러나 있다. 로랑생은 1924년 ‘암사슴’이라는 발레 작품을 위해 의상과 무대를 디자인하며 머리위의 깃털 장식과 우아한 로맨틱 튀튀



<그림 3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삽화 1930년
마리 로랑생

<https://brunch.co.kr/@ethnographer/13?m>



<그림 38> 발레 의상 디자인 1930년
마리 로랑생

<http://egloos.zum.com/lalameans/v/4619295>

드레스 등 아름답고 귀족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 시기의 마리 로랑생은 초상화가로도 유명했다. 당시 파리의 사교계에 서는 마리가 그린 초상화를 자택에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마리에게 초상화를 의뢰한 인물들 중에는 코코 샤넬(Chanel Gabrielle, 1883~1971)도 있었다. 하지만 마리 로랑생의 초상화를 본 샤넬은 작품속의 인물이 본인과 닮지 않았다고 하여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한다.

마리 로랑생은 개성이 다른 모델들의 각각의 특징들 위에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여 어느 작품이나 ‘마리 로랑생의 작품’이라 말 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작품 세계를 펼쳐냈다. 또한 화려한 곡선과 파스텔 색조의 사용, 소박하고 유연한 묘법(描法)과 담홍, 담청, 회백색의 유려하고 감미로운 색채 배합으로 꿈꾸는 듯한 소녀와 섬세한 여성미의 특성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마리 로랑생은 그녀의 작품에서 일생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주제와 색채는 인상주의적인 양식, 추상적인 양식 등을 통해 꾸준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 새로운 회화적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9> mademoisellecoco chanel 1923년 마리 로랑생



<그림 40> Young woman with the dog but the Marie 1922년 마리 로랑생



<그림 41> 시몬 로랑생의 초상 1925년 마리 로랑생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2.3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 세계

2.3.1 알폰스 무하의 생애

1) 초기 (1860-1889)

고국 체코에서 알폰스 마리아 무하(Alfons Maria Mucha)로 알려져 있는 알폰스 무하(Alfons Mucha)는 1860년 7월 24일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 지배하의 슬라브 지역 중 하나였던 이반치체(Ivančice)에서 아버지 온드르 제이 무하(Ondrej Mucha)의 여섯 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온드르제이는 이반치체의 지방법원에서 안내원으로 일했으며 그의 대가족은 마을의 수감소로 사용하고 있던 오래된 석조건물에서 살았다.

무하의 어머니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기에 어린 무하는 매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수년간 마을의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노래 실력 덕분에 모라비아의 수도인 브르노의 명망 높은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접한 성당의 예술, 건축, 프레스코화, 조각과 장신구는 무하의 예술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2> 알폰스 무하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D%8F%B0%EC%>



<그림 43> 알폰스 무하 가족
(<http://www.the-athenaeum.org/art/list.php?m=a&s=tu&aid=1764>)



<그림 44> 알폰스 무하의 이반치체 생가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2177&leafId=1764)

1860~1870년대 동안 체코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로 인해 거의 근절될 뻔했던 체코어와 고유문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는 민족부흥운동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다. 특히 16세기부터 오스트리아에 합병된 체코지역(모라비아, 보헤미아, 실레지아)에서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독립을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브르노에서 유학중이던 무하는 비엔나(Vienna)의 영향에 반대하는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모라비아의 전통 미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1878년 브르노에 거주하던 무하는 그의 드로잉 선생님의 권유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Academy of Art in Prague)에 지원했으나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1년 후인 1879년 무대 미술 회사인 카우츠키 브리오시 뷔르가르트(Kautsky-Brioschi-Burghard)에 채용되어 무대 미술 분야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1881년 12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링 극장의 화재로 실직을 하게 되고 무하는 고향인 모라비아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여행 중 경비가 떨어진 무하는 오스트리아-체코 국경지대인 미클로프에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는데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그 지역의 대주주 쿨헨 벨라시(Khuen Belasi) 백작의 제안으로 그의 저택인 엠마호프 성과 그의 동생 에곤 백작이 사는 티롤 지방의 강데(Gandegg)성의 프레스코화를 그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림 45> 1881년 링 극장의 화재



<그림 46> 에곤 쿨헨 벨라시 백작의 강데성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8&contents_id=30002

1885년 무하는 에곤 백작의 후원으로 뮌헨의 미술 아카데미(the Academy of Fine Arts)에 입학하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체코, 러시아 출신의 슬라브족 친구들과 어울리며 슬라브족의 예술가 모임인 슈크레타 클럽의 대표로 활동하며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체코인 커뮤니티를 위해 ‘세인트 시릴과 메토디오’(Sainte Cyril and Methodius, 1887)라는 제단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1887년 백작의 후원으로 무하는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Academie Julian)에서 1년을 수학한 뒤 콜라로시 아카데미(Academie Colarossi)에 편입하였지만 1889년 갑작스런 백작의 후원 중단으로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다(김 은혜, 2012).

2) 중기 (1890-1903)

에곤 백작으로부터의 후원 중단으로 미술 공부를 중단한 무하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파리와 프라하에 있는 출판사의 책이나 잡지사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시작하였고 뛰어난 예술적인 감성과 개성 있는 장식 스타일로 능력 있는 삽화가로서의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랑드 쇼미에르(Grande Chaumiere)에 위치한 마담 샬롯의 크레메리(Madame Charlotte's Cremerie)식당 위층의 작은 방에 거주하면서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이나 아우구스트 스트린버그(August Strindberg, 1849~1912)등의 미술가들을 만나 예술적 교감을 나누기도 하였다.

1895년 알폰스 무하는 우연한 기회에 당시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가 여주인공을 맡은 연극 ‘지스몽다(Gismonda)’의 포스터를 그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기존의 포스터와 차별화를 이룬 무하의 포스터 ‘지스몽다’는 사라 베르나르뿐 만 아니라 파리의 일반 시민들까지 매료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사라 베르나르의 모든 포스터 디자인과 무대, 의상 제작까지 맡게 되었다. 1896년에는 인쇄업자 F.샹프누와와의 광고 포스터와 장식 포스터 제작을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무하 스타일’이 시작되었다. 무하는 파리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고 그 후로 5년 동안 가장 성공한 파리의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연극

과 광고 포스터, 장식 패널, 잡지 커버, 레스토랑 메뉴, 엽서와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다(네이버캐스트).

무하는 그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사람들의 집과 그들의 생활양식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견본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인을 위한 핸드북’을 구상하였고 1902년 그의 장식 작업을 집대성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장식 도큐먼트(Documents Decoratifs)’를 발간하였다.

1899년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1900년 개최 예정의 파리 박람회에 출품할 실내장식 작품의 제작을 의뢰받은 무하는 이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위해 발칸 반도를 여행하였고, 이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7개월 만에 작품에 대한 드로잉을 완성하였다<그림 47>. 이 경험으로부터 슬라브족 사람들의 고통과 영광을 위한 기념비적인 작품 ‘슬라브 서사시(The Slav Epic)’에 대한 작품 계획이 시작되었다.

3) 후기 (1904-1939)

1904년부터 1909년 사이에 무하는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림 47>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빌리온 (원본 사진)



<그림 48> 1904년 4월 3일자 뉴욕 데일리 1면 뉴스 (1904년, 신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아르누보 양식(Art Nouve)’이 유행하면서 무하의 명성은 커져갔고 그의 이름은 당시 시각 예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세계 미술 시장에 우뚝 선 그의 위치를 반영하듯 무하는 1900년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가하였고 무하가 미국을 방문할 당시 그의 방문은 뉴스 1면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뉴욕 데일리 뉴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식 예술가’라 보도할 정도였다 <그림 48>. 하지만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의 후원자를 찾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하는 초상화, 삽화, 포스터 등의 작업과 시카고 미술대학을 비롯한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여러 학교들에서 강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제작한 작품들 중에는 유명 여배우들의 포스터도 있었는데 구매자의 취향을 고려해 미국적인 것을 소재로 삼은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되었고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뉴욕과 독일 극장의 실내를 아르누보 양식으로 디자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되었다.

1906년 무하는 파리에서 그에게 미술 수업을 받던 체코 출신의 마루슈카 히틸로바(Maruška Chitilová, 1879~1959)와 결혼하게 되고 1909년에 딸 야르슬라바(Jaroslava Mucha, 19015~1986)가 1915년에 아들 이르지(Jiří Mucha, 1915~1991)가 태어났다.

1909년 성공한 백만장자 찰스 리처드 크레인(Charles Richard Crane)으로부터



<그림 49> 슬라브 서사시1(슬라브족의 기원) <그림 50> 슬라브 서사시3(예배로의 인도)

http://press.sac.or.kr/_press/000<-2013/20130711%20Ex_mucha/Mucha%20Pre/Mucha%20Pre.

터 ‘슬라브 서사시’를 위한 후원을 약속받고 1910년 조국으로 돌아간 무하는 모국에서의 첫 번째 작품인 프라하 시청의 시장실 장식을 마친 후 남은 생애를 ‘슬라브 서사시’ 제작에 전념하였다. ‘슬라브 서사시’는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에 완성되었는데 이기간 동안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몰락시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8년에 무하의 조국은 체코슬로바키아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위해 무하는 우표, 지폐와 국가의 휘장 및 경찰 단복 등 국가에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디자인하고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 10주년을 맞이하자 ‘슬라브 서사시’를 프라하 시에 공식적으로 기증하였다. 1928년과 1933년 사이에 이 연작은 프라하, 브르노와 플젠의 세 도시에서 전시되었다.

무하는 슬라브 서사시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의 평화라는 보편적 목표를 위해 모든 슬라브 민족이 함께하기를 기대했지만 독립을 이룩한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1938년 뮌헨 협정이 체결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나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1939년 3월 15일에 독일군은 프라하를 침공하였고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심문 후에 집으로 보내졌지만 정신적으로 약화되고 건강을 해쳤던 무하는 1939년 7월 14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사라무차, 토모코 사토, 네이버캐스트).

2.3.2 알폰스 무하의 작품 세계

19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미학 운동, 산업화, 공예 운동 등의 중요한 개념들이 회화적 형태를 띠고서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들은 W.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 라파엘 전파, 동양 미술, 켈트 미술, 장식 미술 그리고 최초로 과거와의 성공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뛰어난 장식적 양식을 창출한 책 삽화 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도널드 레이놀즈, 1991).

산업혁명과 새로운 재료에 의한 공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건축 주제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아르누보(Art Nouv) 양식은 1890년경부터

약 20년간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장식 미술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르누보는 ‘새로움’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었으며 주로 식물들의 곡선들을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였기에 ‘꽃의 양식’, ‘물결의 양식’, ‘당초 양식’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아르누보의 명칭은 신예술(New Art)이란 뜻으로 1890년대에 자연주의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구사했던 미술사조로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도 포함된다.

아르누보 양식을 대표하는 작가인 알폰스 무하는 화가, 그래픽 아티스트, 건축, 보석,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유연한 곡선과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장식성이 뛰어난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려냈으며, 화려하고 섬세한 모티브, 간결한 선 처리, 꽃과 잎새, 그리고 무늬와 기호들의 구조 속에 수려하게 짜여 넣어진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무하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였다.

1) 포스터

알폰스 무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가 그린 한 장의 포스터였다. 1894년 제작된 포스터 ‘지스몽다(Gismonda)’<그림 52>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그림 51>를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무하는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에 우연히 이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이를 본 사라 베르나르의 마음에 들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림 51> 사라 베르나르
<https://ko.wikipedia.org/wiki>

1895년 새해 첫날 무하의 포스터 ‘지스몽다’는 파리 시내 거리들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 포스터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전신 크기라는 파격적인 사이즈와 유려한 곡선으로 얹힌 장식적 패턴으로 다른 포스터와의 차별화를 성공시킨 이 포스터는 파리 곳곳의 담벼락에서 무하



의 이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르 스틸 뤼샤(Le Style Mucha, 무하 스타일)’는 아르누보의 동의어이자 무하의 브랜드가 되었다(이 동민, 2013).

<그림 52> 이 포스터에서 무하는 멋진 가운을 걸치고 난초 머리 장식을 한 채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있는 베르나르를 이국적인 비잔틴 귀부인의 모습으로 담아냈다. 아치형의 플랫폼 속에 배치한 실사 크기의 그녀의 모습에서 무하는 사라 베르나르의 정밀묘사나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신 무대 위에 나타나는 그녀의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포스터 ‘지스몽다’의 성공으로 무하는 인쇄업자들로부터 광고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의뢰들을 받게 되었고 1896년 파리의 인쇄소 샹프누아(Champenois)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다.

<그림 52> 지스몽다
1894년 알폰스 무하
<http://blog.naver.com/mid>

<그림 53> 살롱 데 상 전시회 포스터

살롱 데 상은 새로운 미술을 장려하는 영향력 있는 잡



<그림 53> 살롱 데 상
전시회 포스터 1896년
알폰스 무하
유토피아전 도록



<그림 54> 욕(Job), 포스터의
대가들의 도판 202 1900년
알폰스 무하
유토피아전 도록



<그림 55> 포스터의
대가들의 전면 삽화 1897년
알폰스 무하
유토피아전 도록

지 ‘라 플럼’의 전시장이었는데 무하는 이 잡지의 편집장 레옹 데샹(Léon Deschamps 1864~1899)의 초대로 이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무하는 감사의 표시로 이 그룹의 20번째 전시회의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이 작품을 본 데샹은 여성의 물결치는 긴 머리카락을 ‘미래에 기념되고 예술의 모든 영장류에 모방될 저 유명한 마카로니’라고 묘사하였다.

<그림 54> 욕(Job)은 포스터 작가 쥘 세레(Jules Cheret 1836~1932)



가 선정한 최고의 포스터들을 싣는 월간 출판물인 ‘포스터의 대가들’의 도판 중 하나로 재판된 작품이다. 무하 특유의 물결치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작품 속 여성의 상징적 이미지는 이 포스터를 통해 확립되었는데 욕의 담배종이를 광고하는 이 포스터는 ‘욕’ 모노그램이 있는 배경으로 육감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론 아라베스크 문양과 손에 쥔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나선형의 연기가 화려한 장식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하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풍성하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2)의 작품 ‘페르세포네’<그림 56>의 영향을 받았다. 로제티가 그린 페르세포네의 머릿결이 단아하고 우아한 풍성함이라면 무하가 묘사한 여성의 물결치는 머릿결은 화려하게 소용돌이치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관능적인 여성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56> 페르세포네
1874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http://blog.naver.com/hope5867?Redirect>

2) 장식 패널

파리의 인쇄소 샹프누아(Champenois)와의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 무하는 포스터 뿐 만 아니라 미술적인 감상이 목적이거나 실내 벽을 장식하기 위해 디



<그림57>백일몽(Rêverie)

1897년 알폰스 무하

<http://blog.naver.com/ho>

[pe5867?Re](http://blog.naver.com/ho)



<그림 58> 사계 (Four Season) 1896년

알폰스 무하

<http://blog.naver.com/wjdwjd9096?Redirect=Log&logNo=130174794874>



자인된 텍스트 없는 포스터인 장식 패널(panneaux décoratifs)도 제작했다. 무하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믿었고 일반인들의 생활양식에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예술을 장려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무하에게 패널 장식화는 그의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이상적인 수단이 되었다. 당시의 발전된 인쇄술에 의해 무하의 장식 패널들은 높은 수준으로 대량 제작되었다. 그동안 부유층들에게만 주어졌



<그림 59> 사계(Four Season) 1900

알폰스 무하

<http://cafe.naver.com/rioatelier/10729>



<그림 60> 비잔틴 두상 'Brunette and

Blonde' 알폰스 무하

<http://blog.naver.com/mido22kr?Redirect=Log&logNo=220434334975>

던 예술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는 장식 패넬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중들에게도 주어졌고 수 년 동안 유럽 전역에 유통되었다.

<그림 57> ‘백일몽’은 원래 샹프누아사의 실내 달력용으로 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자 장식용 패넬로 다시 제작된 작품이다. 무하의 장식 패넬은 꽃과 식물 넝쿨 등의 자연에서 찾아낸 주제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묘사하였는데 보통 두 점이나 네 점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8> ‘사계’는 1896년에 제작된 무하의 장식 패넬화의 첫 번째 세트 작품이다. 거장들의 회화들로부터 응용한 친근한 고전적인 주제를 묘사하여 4개 패넬의 시리즈 안에 요정 같은 여성들로 사계를 의인화하였다. 각각의 패넬에서 계절에 따른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순결한 봄, 정열적인 여름, 풍요로운 가을, 얼어붙은 겨울로 각 계절의 분위기를 담았다. 무하의 사계절 시리즈는 가장 잘 팔리는 테마로 1900년에도 같은 테마의 작품 <그림 59>을 제작하였다.

<그림 60> 비잔틴 예술의 영향으로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무하의 작품 속 이상적인 여인들은 그 시대 아르누보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



<그림 61> 보석들(루비, 자수정, 에메랄드, 토파즈) 1900년 알폰스 무하
<http://cafe.naver.com/collaborationist/60490>

왔다. 장식적인 원 속에 옆모습이 묘사된 무하의 작품 비잔틴 두상(갈색머리, 금발머리)은 두 인물이 서로를 마주보며 쌍을 이루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고귀한 신분처럼 보이는 외양과 보석으로 치장된 이국적인 이미지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머리장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1> 장식 패널 ‘보석들’에는 의인화된 금빛 토파즈, 붉은 빛 루비, 푸른 빛 에메랄드, 자줏빛 자수정이 각 빛깔을 나타내는 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속 여인들의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도발적인 분위기를 띄며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무하는 원래 자수정 여인의 허리 윗부분을 나신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샹프누아 인쇄소가 여체의 노출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그리도록 무하를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예술의 전당, 2013).

3) 장식 예술

1900년 무하는 파리 변화가에 보석상을 가지고 있는 조르주 푸케(Gourge Fouquet)와 계약을 맺고 푸케사의 인테리어와 보석 디자인에도 참여했으며 1902년에는 무하 자신의 디자인을 책으로 집대성한 ‘장식도큐먼트(Document Décoratifs)’를 출간하였다. ‘장식도큐먼트’는 식기, 램프, 가구 등 무



<그림 62> 장식 도큐먼트 전면삽화

[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
og&logNo=220070877126](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logNo=220070877126)



<그림 63> 파리 만국박람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빌리온 천장
[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
og&logNo=220070877126](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logNo=220070877126)

하의 독창성이 숨 쉬는 아르누보 디자인이 총 망라되어 있는 무하 장식예술의 백과사전이었다<그림 62>.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무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상업 예술가로서 보석 상인인 푸케와 프랑스의 향수 제조업자들의 전시부스를 디자인하고 체코예술가로서의 그의 작품은 그랑팔레의 오스트리아 섹션에 전시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공식 예술가로서 오스트리아 전시실을 홍보하는 파빌리온 포스터제작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빌리온의 중앙 홀 장식<그림 63>도 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1899년 무하는 보스니아의 헤르체고비나 및 발칸 반도의 다른 국가들을 여행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빌리온을 위한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하였다.

4) 슬라브 서사시

알폰스 무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의 파빌리온 중앙 홀 장식 자료 수집을 위해 보스니아와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통 받는 슬라브 민족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무하로 하여금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역사를 순수예술로 완성시키는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하였고, 무하는 프로젝트의 후원자를 찾기 위해 1904년 이후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였다.

후원자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자 무하는 시카고 미술대학을 비롯해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다른 학교들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며 미국의 유명 여배우들의 포스터와 사교계의 유력 인사의 초상화, 삽화 등의 작업을 의뢰받아 제작하기도 하였고 뉴욕과 독일 극장의 전체 실내를 아르누보 양식으로 디자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슬라브 서사시’의 후원자를 찾던 무하는 1909년 시카고 출신의 기업가 찰스 리처드 크레인(Charles Richard Crane, 1858~1939)을 만나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의 후원을 약속 받았다. 1911년 무하는 50세의 나이에 ‘슬라브 서사시’의 작업을 착수했고 서부 보헤미아에 있는 즈비로흐(Zbiroh)성을 빌려 작업실로 사용



<그림 64> 알폰스 무하

슬라브 서사시 작업중

<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og&logNo=220070877126>

하면서 여생을 ‘슬라브 서사시’의 창작에 바쳤다. ‘슬라브 서사시’는 1000년이 넘는 슬라브족의 역사를 축복하며 체코와 관련된 다른 슬라브족의 사람들까지 다루었다. 이 작품은 1926년에 완성되었고 1928년 무하와 크레인은 체코슬로바키아 탄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프라하시에 ‘슬라브 서사시’ 전작을 기증하였다.

<그림 66> ‘슬라브 서사시’의 마지막 작품에서 무하는 그의 관점에서 보는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그렸다. 작품의 중앙에 절정기로서 1918년 이후 슬라브 국가의 해방을 기념함과 동시에, 슬라브인

의 환희와 고통을 통한 고대부터 과거의 역사가 이를 둘러싸고 있다. 중앙 부분에 높이 치솟은 젊은이는 새롭고 강한 국가의 구현이며 그가 뻗은 손에는 자유와 화합의 화환이 들려있다. 더불어 무하는 중앙 부분에 슬라브인과 인류의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 소녀를 포함시켰다. 이 역사의 절정기는 무지개에 둘러싸여 젊은이의 뒤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에 의해 축복을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슬라브 서사시’는 체코와 다른 슬라브 민족의



<그림 65> 뤼겐 섬의 스반토비트 축제 1912년

알폰스 무하

<http://cafe.naver.com/leezm/1650>



<그림 66> 슬라브 서사시 NO.20 1926년

알폰스 무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6459&cid=46702&categoryId=46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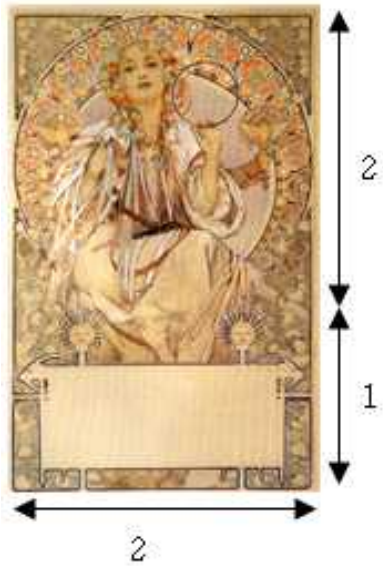
역사에서 중요한 20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고대의 기원으로부터 중세와 종교 개혁, 합스부르크 제국, 슬라브 민족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제1차 세계대전 여파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문명의 발전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의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신의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슬라브인들, 두 번째는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파괴를 가져온 공포와 비극의 전쟁,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종교,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상호 존중하며 억압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삶과 번영을 누릴 인류의 권리이다. 알폰스 무하는 이 작품을 통해 슬라브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범세계적인 평화와 인류 공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5) 알폰스 무하 예술의 미학적 원칙과 테마

알폰스 무하는 미국의 미술 대학에서 예술철학을 강의하며 미학적 원칙과 창작의 테마를 융합시킨 ‘황금비율’, ‘자연’, ‘민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내놓았다. 첫째 무하는 디자인과 회화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가장 만족스러운 비율 속에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그는 작품 형태와 구성 사이의 ‘무하식 황금비율’ (2;3혹은3;2)의 비율이 시각적으로도 즐겁고 편안한 구성임을 강조했다. 원래 황금비율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한 것으로 1:1.618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는 안정감과 함께 최상의 비례미가 표현되는 미이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예술가들은 특히 황금비율의 직사각형을 사용했고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라의 국기, A4용지, 크레디트 카드 등의 가로 세로 길이에 적용되고 있다.

무하는 작품에서 황금비율 외에도 색과 형태들의 조화에 신경을 쓰고 후광이나 곡선을 장식적 요소로 사용했다. 그는 수직이나 수평인 직선과 달리 곡선과 원이 눈의 긴장을 덜어 편안함을 준다고 믿었다.

영국의 예술사가 브라이언 리드(Brian Reade)에 따르면 무하는 작품의 완벽한 구성을 위해 ‘Q형식’을 빈번히 사용한다고 하였다. ‘Q형식’은 무하의 포스터 ‘슬라비아’<그림 67>를 비롯해 ‘백일몽’<그림 57> ‘보석들’<그림 61> 등에서 볼 수 있듯 장식적인 후광 속에 중심 모티브인 여성이 Q자 형태를 이루며 전체 구



<그림 67> 슬라비아 1907년
알폰스 무하

<http://blog.naver.com/haewon009?Re>
direct=Log&logNo=110181882753

성 속에 다소 비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Q-형식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들에서 황금비율의 세로형 포맷으로 주로 나타났다.

둘째, 무하의 미학적 원칙은 자연 속 대상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 그려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화시키고 묘사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기본자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하의 자연에 대한 탐구는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모든 구성 요소와 색채들이 작품 속에서 조화롭게 표현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셋째, 무하는 민족의 혼과 그 문화의 콘텐츠를 작품 속에 표현했다. 무하에게 민족이란 장식 예술과 영적 예술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었다(김은혜, 1912)

Ⅲ.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회화속의 로맨틱 이미지 분석

1711년 로맨틱이란 말은 훌륭하다는 말과 관련하여 쓰여 지면서 ‘상상력을 사로잡는다’란 뜻을 갖게 되었다. 상상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자연속의 풍경이나 경치, 숲이나 야생적인 장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쓰여 지면서 ‘그림 같은’이란 말의 대용어가 되기도 했다. 현재에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따스하고 인간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언어로도 쓰여지고 있다. 로맨틱 이미지는 밝고 장식적이며 리드미컬한 곡선을 중심으로, 흐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로맨틱’의 색채 이미지는 가볍고 감미로운 느낌을 주는 색상을 중심으로 빨강에 다양한 양으로 혼색한 색들이 주조를 이룬다. 로맨틱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표색은 핑크이며, 적색 계열인 핑크는 주의와 흥분을 주는 색채이지만 빨강에 비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식적이며, 곡선적인 요소를 가진 다양한 형태와 감미로운 느낌을 주는 핑크, 퍼플, 버건디의 색채를 중심으로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3.1 마리 로랑생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

3.1.1 마리 로랑생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아래의 <표 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마리 로랑생 회화의 조형적 특성은 전 시기에 걸쳐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작품에서는 입체주의적인 경향이 보여 가늘고 뾰족한 원추형의 얼굴 형태가 나타나고 입체적인 표현을 자제하면서 인물들을 평면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Artemis’에서 보여 지는 끝이 동그랗게 말린 곡선과 그 끝에 달린 꽃의 형태는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중기의 작품에서는 선명한 선의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에 비슷한 톤의 색채

을 인접시켜 형태를 완성하여 인물과 배경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다. 이는 외로운 타국 생활의 심리적 위축과 고통을 모호한 작품 형태로 표현한 듯 보인다. 인물의 형태는 아직 입체주의적인 영향이 남아 평면적인 형태가 보이지만 조금씩 입체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후기의 작품들에서 보여 지는 인물들은 배경과의 확연한 색상차로 그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좀 더 완만하고 둥근 곡선을 사용한 인물들에게서 여유로움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초기와 중기보단 입체적인 느낌이 강해지고 섬세한 선 처리로 장식적인 느낌이 강해졌다.

시기	작 품			조형적 특징
초기 (1905-1913)				·색채의 근접으로 형태를 완성 ·입체주의의 영향으로 원추형의 형태가 보임 ·선명한 선의 형태가 보임 ·아르누보적인 곡선도 보임 평면적이고 단순한 느낌
	bouquet, 1908	The Fan 1912	Artemis 1908	
중기 (1914-1921)				·명확한 선의 표현이 사라지고 배경과 인물의 경계가 희미해짐 ·명암의 표현으로 입체감 나타남
	girl in a., 1915	the fan 1919	Portraits 1916	
후기 (1921-1956)				·색채로 형태를 구분 짓지만 배경과 인물의 구분이 명확해짐 ·인물과 모티브의 입체감 표현
	Jeune..... 1935	Helene 1936	Bather	

<표 1> 마리 로랑생 회화의 조형적 특징 (본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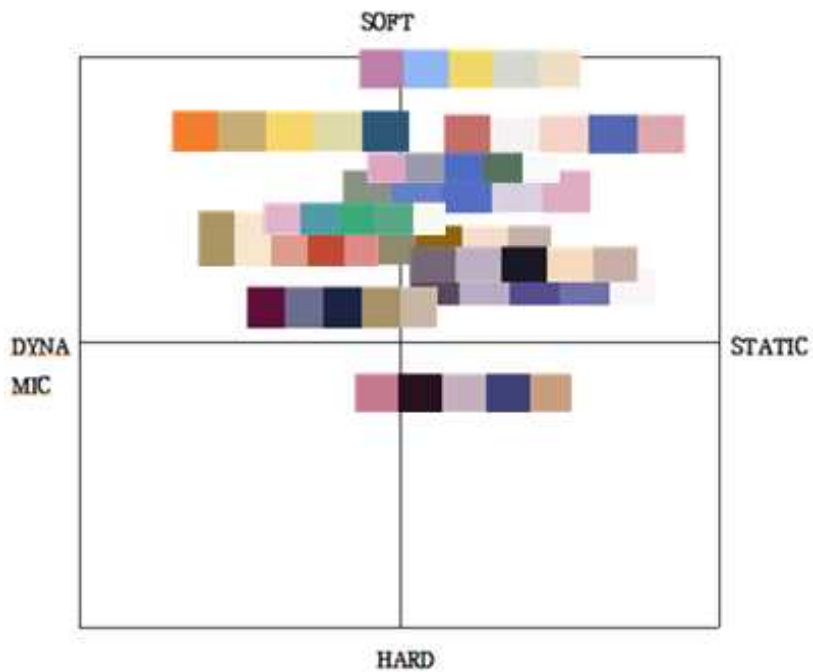
마리 로랑생 작품의 조형적 특징은 색채의 중첩과 접근으로 형태를 완성해 나가고 또렷한 선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 것이다. 또한 화면에 나타난 모든 모티브들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랑스럽고 우아한 여성을 로맨틱하게 표현하기에 적당한 방법과 적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3.1.2 마리 로랑생 회화속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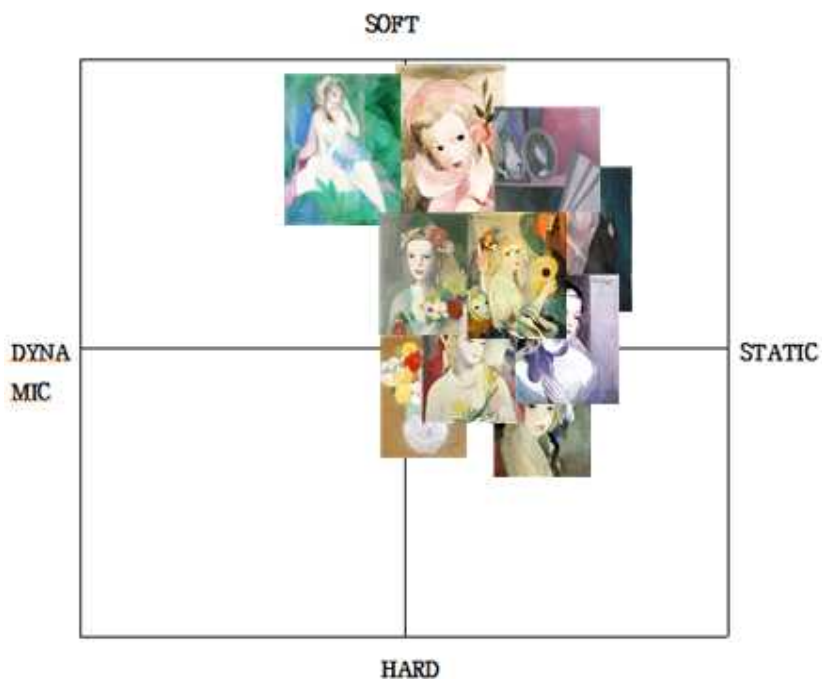
1) 이미지 스케일 분석

마리 로랑생의 작품을 배색 감정의 기본축인 ‘부드러운(Soft), 딱딱한(Hard), 동적인(Dynamic), 정적인(Static)’의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시킨 후 그에 따른 이미지를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하여 색채특성을 분석하였다. 마리 로랑생의 작품을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한 결과 모두 스케일 상단의 부분에 위치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대체로 부드러운(Soft)색감을 나타내었고 대부분 정적인(Static)색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 로랑생의 작품 이미지 스케일을 통하여 <그림 68>과 같이 배색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색감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리 로랑생은 다양한 톤의 붉은 색을 사용하고 부드럽고 탁한 색채를 주로 사용하지만 맑고 생동감 있는 색채와 정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색채도 사용하여 작품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언어적 이미지로는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화려한, 우아한, 자연스러운 등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마리 로랑생 작품의 배색 이미지는 사랑스럽고 우아한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를 표현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그림 68> 마리 로랑생 작품 배색 이미지 스케일(본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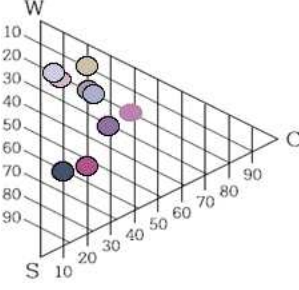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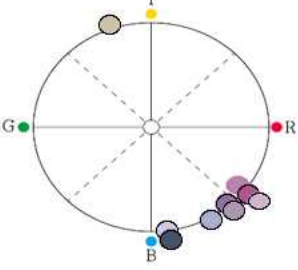


<그림 69> 마리 로랑생의 작품 이미지 스케일(본 연구자 작성)

2) NCS(Natural Color System) 표색계를 통한 색채 특성 분석

NCS는 1972년 스웨덴의 색채 연구소가 발표한 표색계로 스웨덴의 표준협회에서 채택되었다. NCS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의 국가 표준색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계이다.(한국색채연구소, 2006). NCS는 인간의 색 지각 원리를 설명하는 헤링(Edwald Haring)의 4원색 설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NCS의 기본 개념에서 색채는 순수한 심리적 현상이며, 심리적 척도에 근거한 인간의 색채 지각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검정색, 흰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빨강색의 6가지 색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에 따라 색을 구분하며 이는 인간이 색을 어떻게 보는가에 기초하여 완성한 논리적인 색 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응용작품에 채택된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를 응용하기 위해 색채를 육안 측색하였고 NCS 컬러 시스템을 통하여 색상 값을 구하였다.

<표 2>-<표 6>은 본 연구자가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 나타난 색상 값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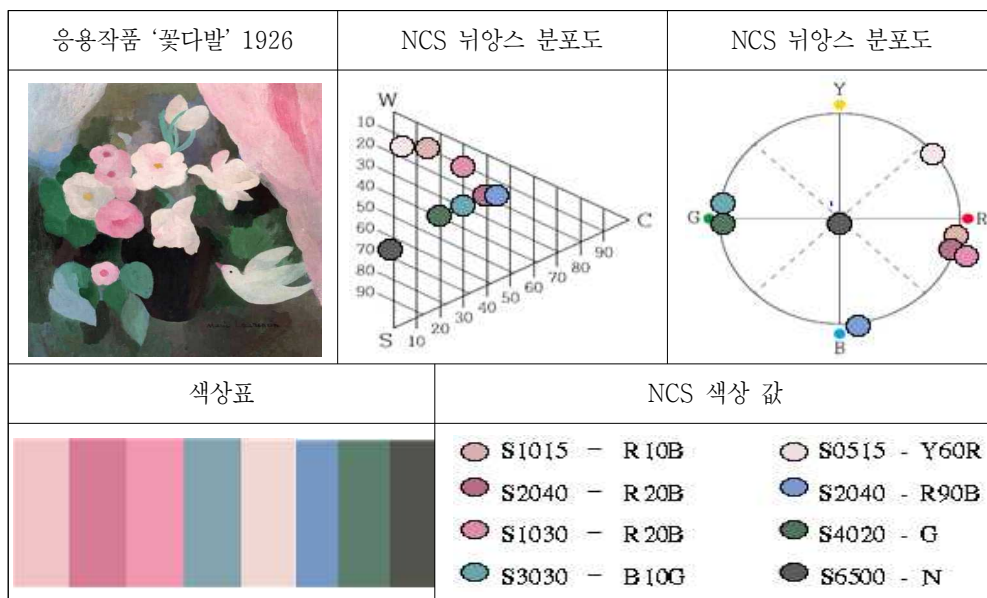
응용작품 '초상화' 1936	NCS 뉘앙스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색상표	NCS 색상값	
	● S2040-R40B ● S2020-R50B ● S2005-R90E ● S3030-R50B ● S1020-R40B ● S2010-G80Y ● S2050-R40B ● S2020-R70B ● S6010-R90B	

<표 2> 마리 로랑생 작품 '초상화'의 NCS 색채 분석

리하여 작성한 도표이다.

<표 2>의 작품 ‘초상화’에서 나타난 색상의 값은 S2040-R40B, S3030-R50B, S2050-R40B, S2020-R50B, S1020-R40B, S2020-R70B, S2005-R90B, S2010-G80Y, S6010-R90B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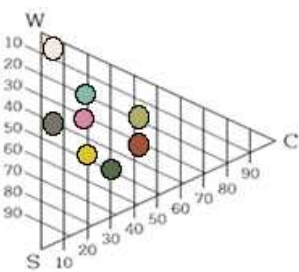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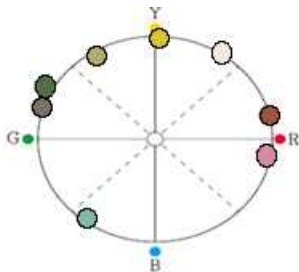
S2040-R40B高明도와 중채도, 60%의 빨강색(R), 4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3030-R50B高明도와 저채도, 50%의 빨강색(R), 5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50-R40B高明도와 중채도, 60%의 빨강색(R), 4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20-R50B高明도와 저채도, 50%의 빨강색(R), 5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20-R40B高明도와 저채도, 60%의 빨강색(R), 4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20-R70B高明도와 저채도, 30%의 빨강색(R), 7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05-R90B高明도와 저채도, 10%의 빨강색(R), 9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10-G80Y高明도와 저채도, 20%의 녹색(G), 8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6010-R90B 중명도와 저채도, 10%의 빨강색(R), 9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표 3> 마리 로랑생 작품 ‘꽃다발’의 NCS 색채 분석

<표 3>의 작품 ‘꽃다발’에서 나온 색상의 값은 S1015-R10B, S2040-R 20B, S1030-R20B, S3030-R10G, S0515-Y60R, S2040-R90B, S4020 -G, S6500-N 과 같다.

S1015-R10B高明도와 저채도, 90%의 빨강색(R), 1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40-R20B高明도와 중채도, 80%의 빨강색(R), 2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30-R20B高明도와 저채도, 80%의 빨강색(R), 2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3030-R10G高明도와 저채도, 90%의 빨강색(R), 1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0515 -Y60R高明도와 저채도, 40%의 빨강색(R), 6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40-R90B高明도와 중채도, 10%의 빨강색(R), 9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4020-G 중명도와 저채도, 100%의 녹색(G)의 색상 값이 나왔다. S6500-N 65%의 검정색(N)의 색상 값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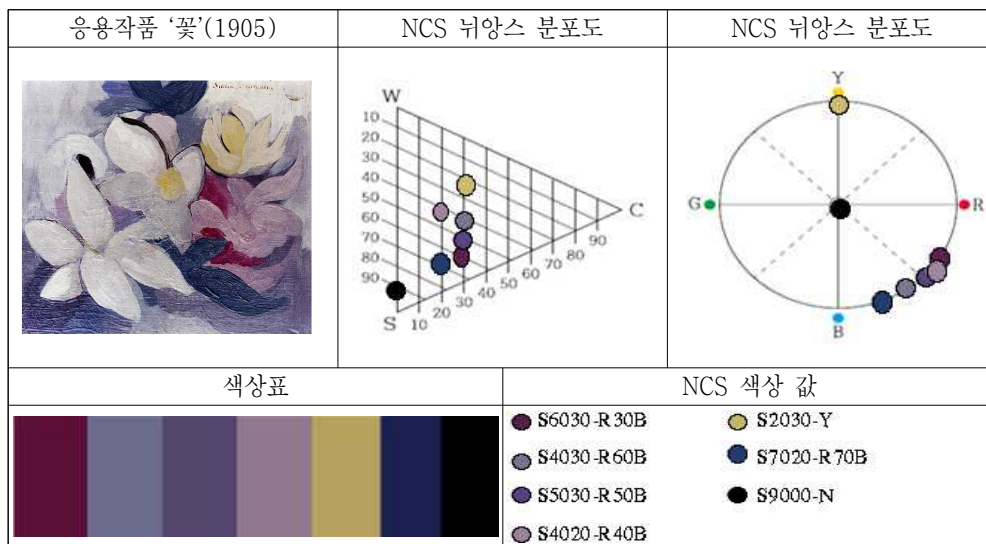
응용작품 ‘꽃을 든 어린 소녀’	NCS 뉘앙스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색상표	NCS 색상 값	
	- S5030-G 30Y - S4005-G 20Y - S2040-G 70Y - S0603-Y 40R	- S4040-Y 90R - S2050-Y - S2020-B 40G - S2030-R 10B

<표 4> 마리 로랑생 작품 ‘꽃을 든 어린 소녀’의 NCS 색채 분석

<표 4>의 작품 ‘꽃을 든 어린 소녀’에서 나온 색상 값은 S5030-G30Y, S4005-G20Y, S2040-G70Y, S0603-Y40R, S4040-Y90R, S2050-Y, S2020-B40G, S2030-R10B 와 같다.

S5030-G30Y 중명도와 저채도, 70%의 녹색(G)과 3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4005-G20Y 중명도와 저채도, 80%의 녹색(G)과 2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40-G70Y 고명도와 중채도, 30%의 녹색(G)과 7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0603-Y40R 고명도와 저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4040-Y90R 중명도와 중채도, 10%의 노란색(Y)과 9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50-Y 고명도와 중채도, 10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20-B40G 고명도와 저채도, 60%의 파란색(B)과 40%의 녹색(G)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30-R10B 고명도와 저채도, 90%의 빨강색(R)과 1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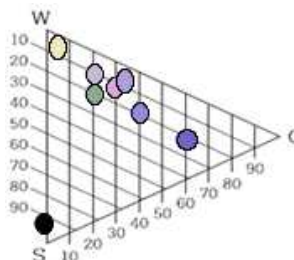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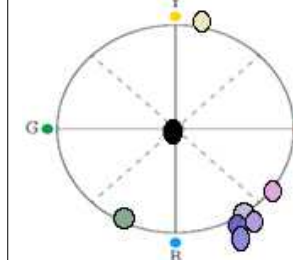
<표 5>의 작품 ‘꽃’에서 나온 색채 값은 S6030-R30B, S4030-R60B, S5030-R50B, S4020-R40B, S2030-Y, S7020-R70B, S9000-N 과 같다. S6030-R30B 중명도와 저채도, 70%의 빨강색(R)과 30%의 파란색(B)의 색상



<표 5> 마리 로랑생 작품 ‘꽃’의 NCS 색채 분석

값이 나왔다. S4030-R60B 증명도와 저채도, 40%의 빨강색(R)과 6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5030-R50B 증명도와 저채도, 50%의 빨강색(R)과 5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4020-R40B 증명도와 저채도, 60%의 빨강색(R)과 4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30-Y 고명도와 저채도, 10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7020-R70B 저명도와 저채도, 30%의 빨강색(R)과 7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9000-N 검정색(N)의 색상 값이 나왔다.

<표 6>의 작품 ‘키스’에서 나온 색채 값은 S1030-R40B, S1020-R60B, S2060-R70B, S2020-B30G, S1030-R60B, S0505-Y20R, S9000-N과 같다. S1030-R40B 고명도와 저채도, 60%의 빨강색(R)과 40%의 파란색(B)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20-R60B 고명도와 저채도, 40%의 빨강색(R)과 60%의 파란색(B)의 색채 값이 나왔다. S2060-R70B 고명도와 중채도, 30%의 빨강색(R)과 70%의 파란색(B)의 색채 값이 나왔다. S2020-B30G 고명도와 저채도, 70%의 파란색(B)과 30%의 녹색(G)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30-R60B 고명도와 저채도, 40%의 빨강색(R)과 60%의 파

응용작품 ‘키스’	NCS 뉘앙스 분포도	
		
색상표		NCS 색상 값
		● S1030-R40B ● S2020-B30G ● S1020-R60B ● S1030-R60B ● S2060-R70B ● S0505-Y20R ● S2040-R70B ● S9000-N

<표 6> 마리 로랑생 작품 ‘키스’의 NCS 색채 분석

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0505 -Y20R 고명도와 저채도, 80%의 노란색(Y)과 2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9000-N 검정색(N)의 색상 값이 나왔다.

위와 같이 마리 로랑생의 작품 중 다섯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속의 색채를 추출하였고 그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마리 로랑생 작품의 색채는 빨강색의 혼합 색을 많이 사용하여 남성적인 느낌 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명도와 중명도의 색을 자주 사용하여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며 저채도의 색채로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사랑스럽고 우아한 작가만의 독특한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색채 분석 결과로 로랑생 회화의 색채는 로맨틱 이미지 중 ‘사랑스러운’, ‘우아한’의 표현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2 알폰스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

아르누보 양식을 대표하는 작가인 알폰스 무하는 화가, 그래픽 아티스트, 건축, 보석,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유연한 곡선과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여 장식성이 뛰어난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려냈으며, 화려하고 장식적인 모티브, 간결한 선 처리, 꽃과 잎새, 그리고 무늬와 기호들의 구조 속에 수려하게 짜여 놓어진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무하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들 중 포스터와 장식 패널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미지 스케일과 NCS 컬러 시스템을 통해 색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3.2.1 알폰스 무하의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알폰스 무하는 자연적 소재인 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을 유기적으로 표현하고 여성의 사랑스러움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적 모티브로도 사용했다. 또한 무하는 평면적이고 이차원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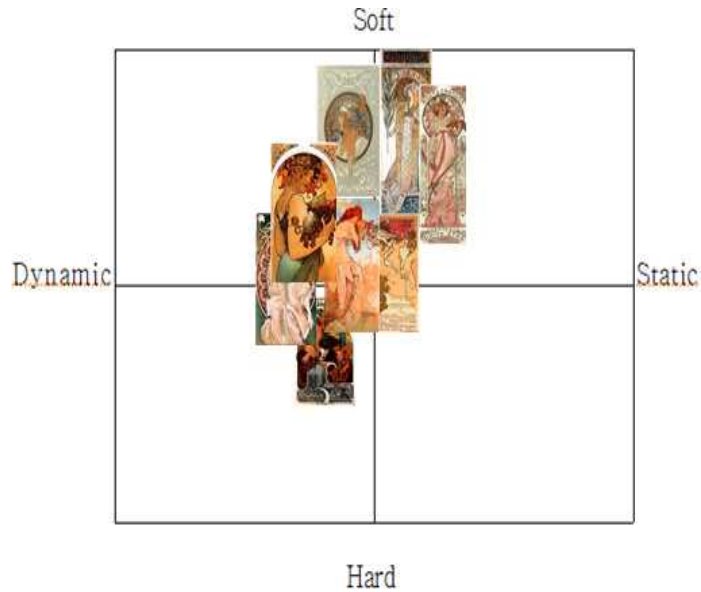
구분	알폰스 무하의 작품	조형적 특성
포스터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머리카락, 꽃, 식물등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상징적, 장식적, 평면적	
장식패널	 ·식물과 결합된 섬세하고 유기적인 곡선을 사용 여성의 생동감과 신비로움을 표현 ·유기적, 장식적, 상징적, 추상적	

<표 7> 알폰스 무하 회화(포스터, 장식 패널)의 조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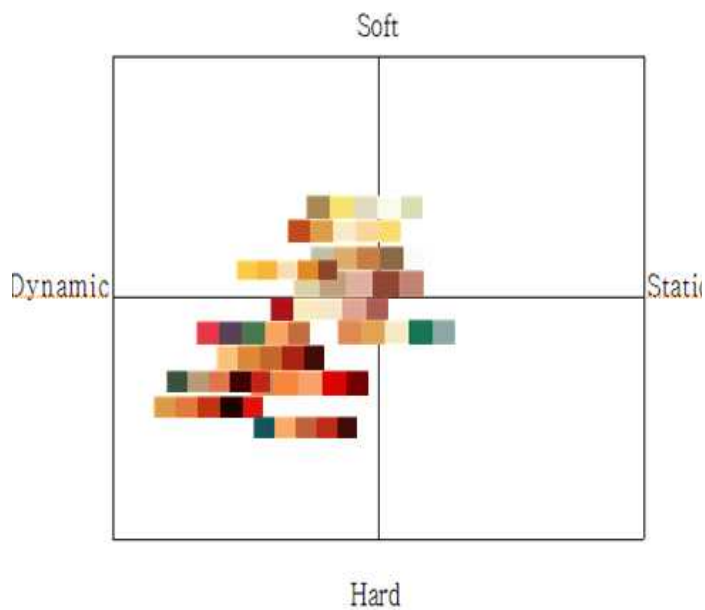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색 면과 윤곽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품속의 인물이나 모티브를 표현했다. 자연적 모티브는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희, 노, 애, 락), 계절의 느낌, 사상 등의 추상적 개념들을 구상적인 형태로 가시화해 표현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또한 직선, 곡선, 원, 점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식물, 풍경 등의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작품의 장식성을 극대화하였는데 유연하고 과장적인 형태의 담쟁이덩굴과 넝쿨풀 등의 식물 모티브는 유동적인 선을 표현하여 화려함을 주었고 여성의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은 우아하고 섬세한 장식적 요소로서 구성하였으며 물결치는 긴 머리카락은 작품의 역동성을 살려주는 장식적 요소로서 사용하였다. 이에 알폰스 무하 작품(포스터, 장식패널)의 조형적 특성은 위의 <표 7>에서 보여 지는 것같이 유기적이고 상징적이며 추상성과 구상성이 공존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2 알폰스 무하의 회화 속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적 특성

1) 이미지 스케일 분석



<그림 70> 알폰스 무하 작품 이미지 스케일



<그림 71> 알폰스 무하 작품 배색 이미지 스케일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배색 감정의 기본축인 ‘부드러운(Soft), 딱딱한(Hard), 동적인(Dynamic), 정적인(Static)’의 이미지 스케일<그림 70>에 적용시킨 후 그에 따른 이미지를 배색 이미지 스케일<그림 71>에 적용하여 색채특성을 분석하였다.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 스케일 중간 부분에 위치하였다. 그의 작품은 ‘부드러운(Soft)’의 배색 이미지도 사용하였지만 딱딱한(Hard)느낌의 색감도 같이 사용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고 정적인(Static)색상과 동적인(Dynamic)색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와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적 이미지는 ‘화려한’ ‘매력적인’ ‘우아한’ ‘장식적인’ ‘자연적인’ ‘이국적인’ 등이 있다.

2) NCS 표색계를 통한 색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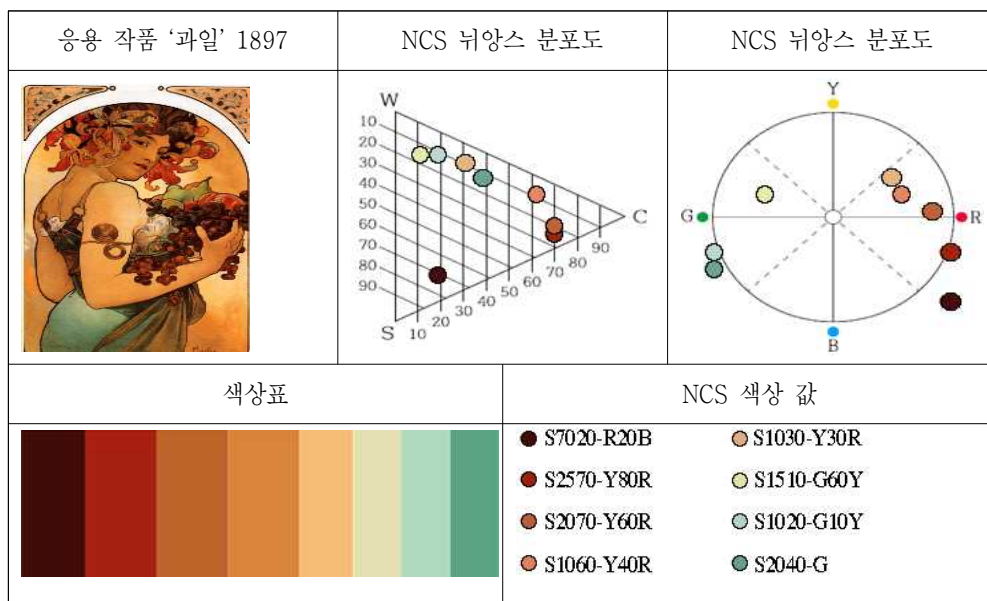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마리 로랑생의 경우와 같이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채택된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를 응용하기 위해 색채를 육안 측색하였고 NCS 컬러 시스템을 통하여 색상 값을 구하였다.

<표 8>-<표 10>은 본 연구자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색상 값을 정리하여 작성한 도표이다.

<표 8>의 작품 ‘여름’에서 나온 색채 값은 S5040-R, S1080-R, S1030-Y40R, S1060-Y40R, S2050-Y20R, S1020-Y40R, S1005-Y30R, S3010-B10G 과 같이 나타났다.

S5040-R 중명도와 중채도, 10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80-R高明도와 고채도, 10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30-Y40R 고명도와 고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60-Y40R 고명도와 중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2050-Y20R 고명도와 중채도, 80%의 노란색(Y)과 2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1020-Y 40R 고명도와 저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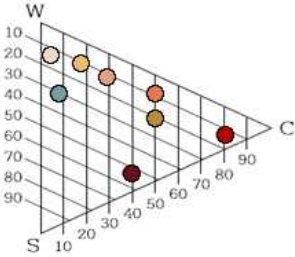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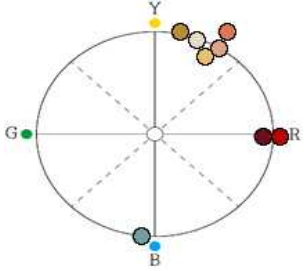
S1005-Y30R 고명도와 저채도, 70%의 노란색(Y)과 30%의 빨강색(R)의 색채 값이 나왔다. S3010-B10G 고명도와 저채도, 90%의 파란색(B)과 10%의 녹색(G)의 색채 값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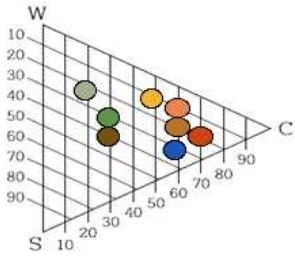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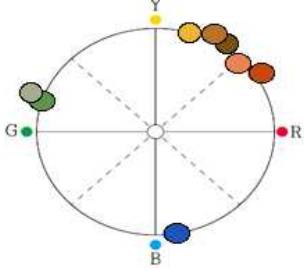
<표 9> 알폰스 무하 작품 '과일'의 NCS 색채 분석

<표 9>의 작품 '과일'에서 나온 색채 값은 S3060-R90B, S2570-Y80R, S2070-Y60R, S1060-Y40R, S1030-Y30R, S1510-G60Y, S1020-G10Y, S2040-G 과 같이 나타났다.

S7020-R20B 저명도와 저채도, 80%의 빨강색(R)과 2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570-Y80R 고명도와 고채도, 20%의 노란색(Y)과 8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70-Y60R 고명도와 고채도, 40%의 노란색(Y)과 6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60-Y40R 고명도와 중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30-Y30R 고명도와 저채도, 70%의 노란색(Y)과 3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510-G60Y 고명도와 저채도, 40%의 녹색(G)과 6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20-G10Y 고명도와 저채도,

응용작품 '여름' 1896	NCS 뉘앙스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색상표	NCS 색상 값	
	- S5040-R - S1080-R - S1030-Y40R - S1060-Y40R - S2050-Y20R - S1020-Y40R - S1005-Y30R - S3010-B10G	

<표 8> 알폰스 무하 작품 '여름'의 NCS 색채 분석
 90%의 녹색(G)과 1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40-G 고 명도와 중채도, 100%의 녹색(G)의 색상 값이 나왔다.

응용작품 '금발머리' 1897	NCS 뉘앙스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색상표	NCS 색상값	
	- S3060-R90B - S3030-G20Y - S1050-Y20R - S1060-Y50R - S2070-Y60R - S4030-Y40R - S2060-Y30R - S2020-G20Y	

<표 10> 알폰스 무하 작품 '금발 머리'의 NCS 색채 분석

<표 10>의 작품 ‘과일’에서 나온 색채 값은 S7020-R20B, S3030-G20Y, S1050-Y20R, S1060-Y50R, S2070-Y60R, S4030-Y40R, S2060-Y30R, S2020-G20Y 와 같다.

S7020-R20B 저명도와 저채도, 80%의 빨강색(R)과 20%의 파란색(B)의 색상 값이 나왔다. S3030-G20Y 고명도와 저채도, 80%의 녹색(G)과 2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50-Y20R 고명도와 중채도, 80%의 노란색(Y)과 2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1060-Y50R 고명도와 중채도, 50%의 노란색(Y)과 5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70-Y60R 고명도와 저채도, 40%의 노란색(Y)과 6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4030-Y40R 중명도와 저채도, 60%의 노란색(Y)과 4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60-Y30R 고명도와 중채도, 70%의 노란색(Y)과 30%의 빨강색(R)의 색상 값이 나왔다. S2020-G20Y 고명도와 저채도, 80%의 녹색(G)과 20%의 노란색(Y)의 색상 값이 나왔다.

위와 같이 알폰스 무하의 작품 중 세 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속의 색채를 추출하였고 그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알폰스 무하 작품의 색채는 빨강색 계통의 색을 주로 하면서 녹색과 파란색 계통의 색을 적절히 같이 사용하여 화려함과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명도의 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중명도의 색채로 고명도 색채의 강렬함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었다. 또한 중간 정도의 채도를 많이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알폰스 무하 여인’만의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색채는 로맨틱 이미지 중 관능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 표현에 적합함을 확인 하였다.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조형적 특성과 색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만들었다.

마리 로랑생은 색채와 색채의 접근으로 인물의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며 명확한 선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형태를 단순화 시켰다. 또한 화면에 나타난 대부분의 모티브는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색채 사용에서는 중명도와 저채도의 색을 주로 사용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주며 여성의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을 몽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폰스 무하는 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을 유기적으로 표현했으며 평면적이고 이차원적인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색 면과 윤곽선을 강조하여 작품속의 인물이나 모티브를 표현했다. 또한 꽃과 식물 등의 자연적 모티브는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희, 노, 애, 락), 계절의 느낌, 사상 등의 추상적 개념들을 구상적인 형태로 가시화해 표현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직선, 곡선, 원, 점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식물, 풍경 등의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작품의 장식성을 극대화하였다. 무하는高明도와 중채도, 중명도와 중채도의 색채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빨강색 계통의 색을 기본으로 녹색, 파란색, 노란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화려함과 이국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작 가	마리 로랑생	알폰스 무하
시 기	·1910년 중반부터 1930년대	·1890년대
작 품 세계	·상징(자신의 내면세계를 다양한 모습의 여인들을 통해 표현)	·상징과 재현(자연의 모티브와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
소 재	·인물(여성), 동물, 식물	·인물(여성), 식물, 풍경, 문자
형 태	·원근법 무시 ·평면적 ·선·면의 경계 없음 ·형태의 단순화 ·세밀한 묘사 없음	·원근법 무시 ·평면적 ·선과 면의 경계 뚜렷함 ·장식성 강함 ·섬세하고 세밀한 묘사
기 법	·색채와 색채의 근접과 중첩으로 형태를 만들어감 ·마띠에르(Matiere, 질감)와 색채의 변화로 화면 구성	·윤곽선을 굵게 처리하고 색채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표현 ·석판화 기법
색 채	·빨강색 계통 색 위주(분홍, 보라..) ·고명도, 저채도	·빨강색 계통 색에 녹색, 파란색, 노란색 배색 ·중명도, 중채도, 고채도
이미지	·사랑스러움, 우아함, 몽환적	·관능적, 이국적, 장식적

<표 11>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색채적 특성 (본 연구자가 작성)

IV. 마리 로랑생 & 알폰스 무하 회화의 로맨틱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4.1 작품의 제작 의도 및 제작 방법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는 여성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표현하던 시대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존감, 고귀함을 표현한 작가였다. 이에 두 사람의 작품들 중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작품들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조형적 특징과 색채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이를 근거로 그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로맨틱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마리 로랑생 작품의 로맨틱 이미지는 ‘사랑스러운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몽환적 이미지’ 등으로 나타났고, 알폰스 무하 작품에서는 ‘관능적 이미지’, ‘장식적 이미지’, ‘이국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분석 결과로 나타난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 작품의 로맨틱 이미지와 두 작가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마리 로랑생 회화의 화려하고 몽환적인 색채와, 풍요롭고 장식적인 문양, 부드러운 색감, 꽃과 자연을 소재로 한 알폰스 무하 회화의 색채와 조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응용하고자 한다.

아트메이크업의 재료에는 기본 메이크업 재료(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립스틱 등)와 도구(브러시, 분첩 스펀지 등), 아쿠아 컬러(인체용 수성 물감), 라이닝 컬러(아트 메이크업용 컬러 파운데이션의종류), 아크릴 물감 등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EVA(Ethylene +Vinyl+Acetate의 약자, 질감, 단열성, 보온성이 뛰어난 건축자재이나 유연성과 발색성이 뛰어나 아트 메이크업의 오브제 소재로 많이 쓰임), 스펅글, 한지,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작품은 종이 재질의 마스크와 플라스틱 재질의 마스크를 사용한 아트 마스크 5작품과 얼굴과 가슴까지로 표현 영역을 정하여 인체에 표현한 아트메이크업 6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4.2 작품 제작 및 설명

4.2.1 작품 I <순수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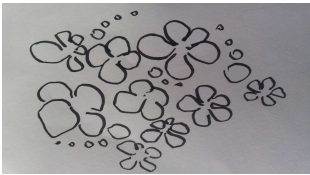
‘순수 I,II’는 마리 로랑생의 작품 「꽃다발」과 「젊은 여인의 초상화」를 응용하여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 ‘꽃다발’은 마리 로랑생의 특유의 색채인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핑크색을 주조로 하여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소녀의 감성을 보여준다. 조형적인 형태로는 명확한 선의 표현보다는 색채와 색채의 접근으로 평면적인 형태를 이루고 단순하고 다양한 형태의 원으로 표현한 꽃잎의 모양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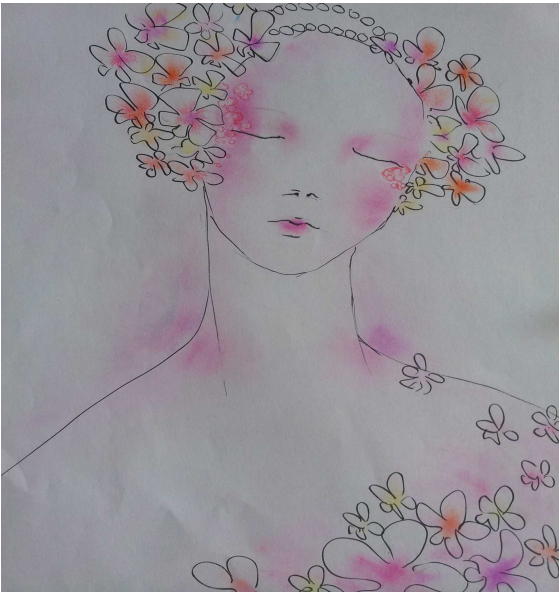
작품 ‘젊은 여인의 초상’ 또한 명확한 선의 표현 없이 색채의 접근으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색채 또한 핑크색을 주조로 하며 중명도와 중채도의 노란색과 녹색의 배색으로 요란하지 않은 화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로맨틱 이미지는 ‘사랑스러움’이다. 로랑생은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꽃’과 ‘소녀’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였고 핑크색을 주조 색으로 하여 중명도 이상의 채도가 높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꽃을 모티브로 한 핑크색조의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응용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추출하여 아트마스크와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12, 13>은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와 색채이며 이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이다.

꽃 병 (1920)		초 상 화 (1936)	
			
작품 속 모티브	모티브 일러스트	작품 속 색채	
		S 2050-R40B	S 0520-R20B
		S 2040-R40B	S 0520-RY
		S 1040-R20b	S 1040-B70G

<표 12> 마리 로랑생 작품 속 응용 모티브 및 색채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일러스트	색채 제안
	S 1040-R30B
	S 2040-R29B
	S 0530-R20B
	S 0540-G90Y
	S 1030-R40B
	S 1040-B70G

<표 13> 마리 로랑생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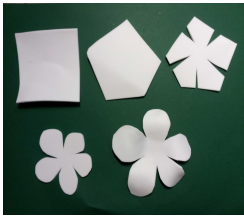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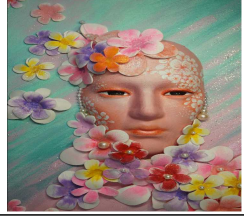
1) 순 수 I

재료는 종이 마스크, 아크릴 물감, EVA, 모조 진주 구슬, 글리터,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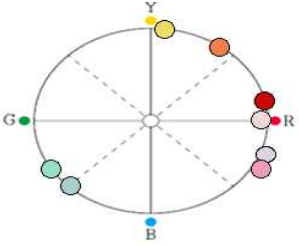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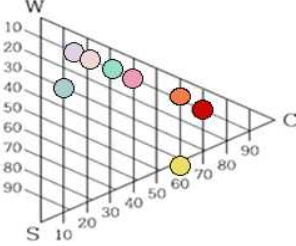
‘순수 I’은 로맨틱 이미지 중 ‘사랑스러움’을 주제로 한 아트마스크 작품이다.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 추출한 꽃 모티브를 사용하였고 색채는 중채도의 명도가 높은 핑크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작품의 단순성을 피하기 위해 꽃 모티브는 마스크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기법과 에바로 만든 모티브를 사용한 오브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반짝이 가루(글리터)와 진주 구슬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다음은 순수 I 의 작품 제작 과정이다.

작업 순서	작업 순서 내용
	1. 종이 재질로 된 마스크를 좀 더 평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잘라내어 높이를 조절하였다.
	2.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피부 톤을 표현하고 얼굴의 음영과 눈동자, 입술 등을 표현하여 소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아크릴 물감으로 작품의 모티브인 꽃 문양을 왼쪽 눈꼬리와 오른쪽 볼에 페인팅 하였다. 이 때 눈 꼬리 쪽의 모티브의 비중을 좀 더 크게 잡아 시선을 위로 당겨 텍션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피하였다.

	4. 에바를 오려 꽃 모티브를 재단하였다. 이 때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꽃잎의 크기나 형태에 변화를 주었고 모티브의 입체감을 위해 열을 가하여 형태의 굴곡을 표현하였다.
	5. 재단한 꽃 모티브를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응용색채를 이용해 전체를 채색하거나 꽃 수술 위주로 채색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다양성을 표현하였다.
	6. 아크릴 물감으로 마스크를 부착할 캔버스를 채색하였다. 마스크와의 조화와 화사한 꽃밭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 주조색인 핑크와 보조색들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채색하였다.
	7. 제작한 꽃 모티브를 마스크에 조화롭게 부착한 후 진주 구슬과 글리터로 마무리하여 소녀다운 순수함과 꽃의 화사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표 14> '순수 I'의 작품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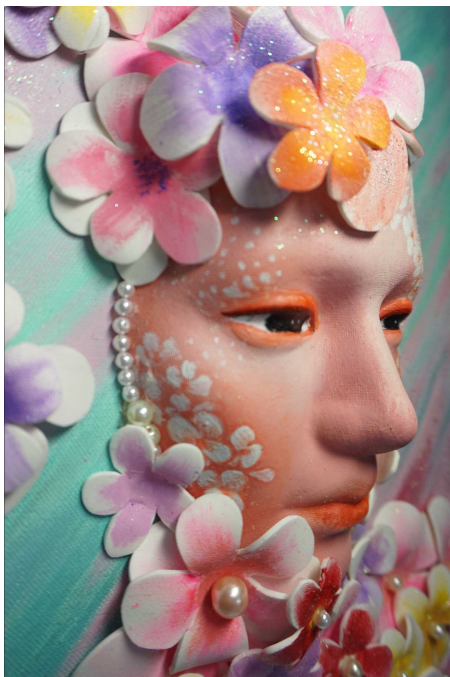
순 수 I	NCS 뉘앙스 분석표	NCS 색상 분포도
		
	 S1015-R10B S3010-B50G S1020-R S1040-R20B S5060-Y10R S1070-Y90R S1030-B70G S1060-Y40R	

<표 15> 순수 I의 NCS 색채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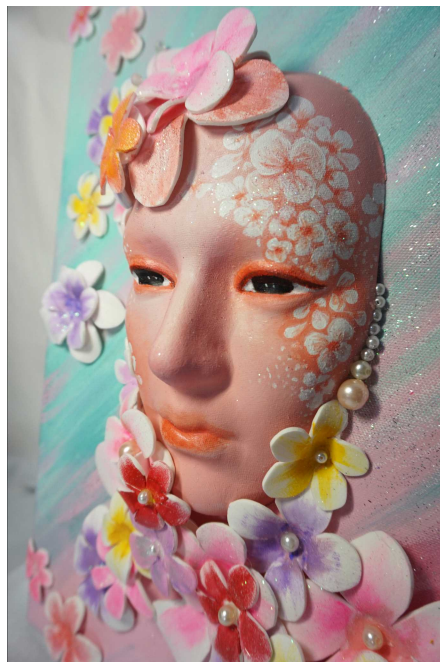
위의 <표 14>는 ‘순수 I’의 NCS 색채 분석도표이다. ‘순수 I’의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값을 구한 결과는 S1015-R10B, 1040-R20B, S1030-B70G, S3010-B50G, S5060-Y10R, S1060-Y40R, S1020-R, S1070-Y90과 같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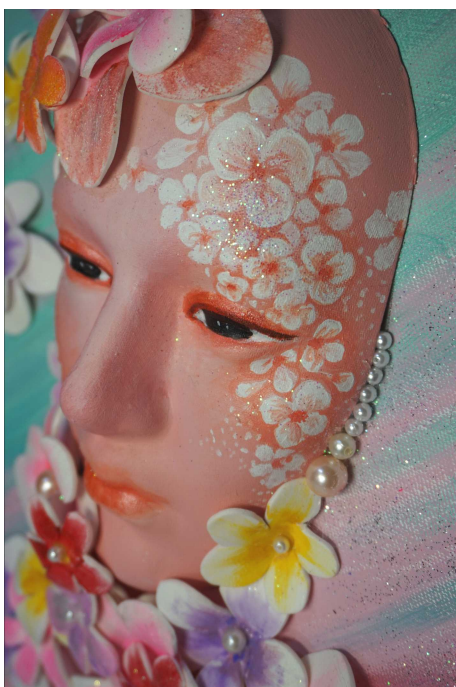
<그림 72> 순수 I (아트마스크 디자인)



<그림 73> 마스크의 우측 디테일



<그림 74> 마스크의 좌측면



<그림 75> 마스크의 좌측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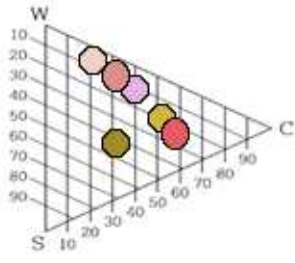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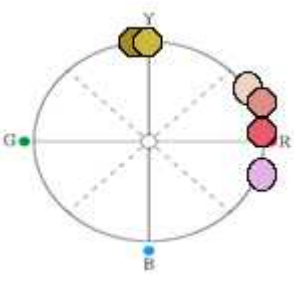


<그림 76> 마스크의 우측면

2) 순 수Ⅱ

재료는 에어브러시, 에어브러시용 메이크업 제품(화운데이션, 아이섀도우), 기본 메이크업 제품(아이섀도우, 파우더, 립글로스...), 아쿠아 컬러, 바디 페인팅용 브러시, 에바(EVA), 모조 진주 구슬, 인조 속눈썹, 글리터

‘순수Ⅱ’는 소녀의 청순함과 사랑스러운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이다. ‘순수Ⅱ’ 역시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 추출한 꽃 모티브를 사용하였고 색채 역시 중 채도나 저채도의 명도가 높은 핑크색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였다. 피부 표현은 소녀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에어브러시와 에어브러시 전용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여 섬세한 피부결을 표현하였고 꽃 모티브는 아트마스크에서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페인팅 하였지만 ‘순수Ⅱ’에서는 인체용 수성 물감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였다. 꽃의 표현은 눈 주위와 가슴 부분에 붓으로 찍는 기법으로 색채를 겹치게 하여 단순하게 하였는데 이는 순수하고 미완성인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에바로 만든 꽃 모티브는 모조 진주 장식과 함께 헤어 오브제로 사용하였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듯한 이미지 표현을 위해

순 수 Ⅱ	NCS 뉘앙스 분석표	NCS 색상 분포도
		
	● S1040-R20B ● S4030-R90Y ● S2050-Y	● S1020-Y70R ● S1030-Y80R ● S2060-R

<표 15> 순수Ⅱ의 NCS색채 분석표



<그림 77> 순수 II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가슴 장식으로도 사용하여 가슴 부분에 페인팅한 꽃 모티브와 연결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한 핑크색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소녀의 표정을 연출하였고 글리터로 화사함을 더해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표 15>는 ‘순수Ⅱ’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순수Ⅱ’의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1040-R20B, S1020-Y70R, S4030-G90Y, S1030-Y80R, S2050-Y, S2060-R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78> 순수Ⅱ 정면



<그림 79> 순수Ⅱ 우측면



<그림 80> 순수Ⅱ꽃 디테일

4.2.2 작품 II <그리움 I,II>

‘그리움 I,II’는 마리 로랑생의 작품 「꽃」에서 모티브를 추출하고 「키스」의 색채를 응용하여 제작하고자 하였다.

마리 로랑생의 작품 ‘꽃’은 단순화된 꽃의 형태를 작가 특유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로 표현하였는데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투박하고 거친 붓 터치로 꽃잎의 움직임에 보여주고 있다. 로랑생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색 계열의 색채를 주조 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파란색 계열의 색채도 이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사용하여 꽃의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차분하고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키스’는 명도가 높은 중 채도나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화사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보라색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여 우아한 이미지도 함께 느낄 수 있다.

꽃 (1905)		키스 (1923)	
			
작품 속 모티브	모티브 일러스트	작품 속 색채	
		S2040-R40B	S 2050-R60B
		S1030-R60B	S 1030-R40B
		S2020-R50B	S 0804-R30B

<표 16> 마리 로랑생 작품 속 모티브, 색채와 응용 모티브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일러스트	색채 제안
	S 0520-R60B
	S 1030-R50B
	S 2050-R60B
	S 0505-R50B
	S 1020-R40B
	S 1015-R10B

<표 17> 마리 로랑생 작품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이에 본 연구자는 ‘꽃’의 차분하고 애수에 찬 성숙한 이미지와 꽃잎 모티브를 응용하고 ‘키스’의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색채를 응용하여 성숙한 여성의 애수에 찬 모습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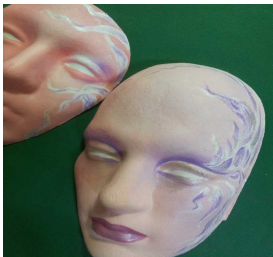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응용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추출하여 아트마스크와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16, 17>은 마리 로랑생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와 색채이며 이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이다.

1) 그리움 I (아트마스크)

재료 ; 종이 마스크(2개), 아크릴 물감, EVA, 글리터,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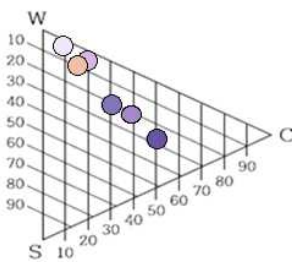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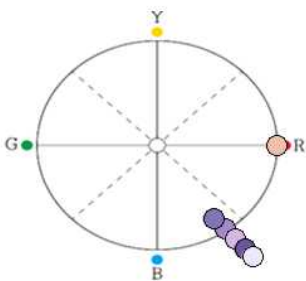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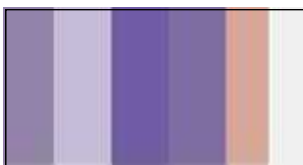
‘그리움 I’은 로맨틱 이미지 중 ‘우아함’을 주제로 한 아트마스크 작품이다. 우아하고 애수어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명도와 채도가 다른 보라색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질감(매트, 펄, 샤이니) 표현으로 작품의 단조움을 피하는 동시에 몽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노란기가 있는 핑크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창백하고 차가워질 수 있는 이미지를 보완하여 여성스러움을 가미하였다. 에바로 제작한 입체적인 모티브는 그리움의 대상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배경의 색채들과 함께 유기적인 곡선을 이루게 하여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표 18>은 ‘그리움 I’의 작품 제작 과정이다.

작업 순서	작업 순서 내용
	1. 마스크만 도드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 마스크의 아랫부분을 잘라내었고 두 개의 마스크중 하나는 그리움의 대상을 향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 쪽(오른쪽)을 낮게 잘라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 코, 입 주위만 남겨둔 작은 얼굴형으로 재단하였다.
	2.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피부톤과 눈의 음영, 입술과 응용 모티브를 표현하였다.

	3. 재단하여 열기구로 성형하여 컬러링한 꽃잎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4. 의도한 위치에 마스크를 부착한 후 꽃잎을 붙여 입체감을 형성시키고 꽃잎의 흐름에 맞춰 배경의 컬러와 흐름을 완성하였다.

<표 18 > 그리움 I 작품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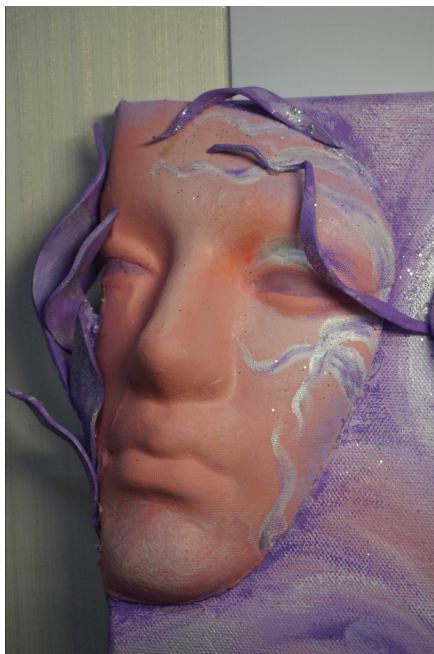
그리움 I	NCS 뉘앙스 분석표	NCS 색상 분포도						
								
	<table><tr><td> S2040-R60B</td><td> S2030-R60B</td></tr><tr><td> S0520-R60B</td><td> S1015-R</td></tr><tr><td> S3050-R60B</td><td> S0510-R60B</td></tr></table>		 S2040-R60B	 S2030-R60B	 S0520-R60B	 S1015-R	 S3050-R60B	 S0510-R60B
 S2040-R60B	 S2030-R60B							
 S0520-R60B	 S1015-R							
 S3050-R60B	 S0510-R60B							

<표 19> 그리움 I 의 NCS 색채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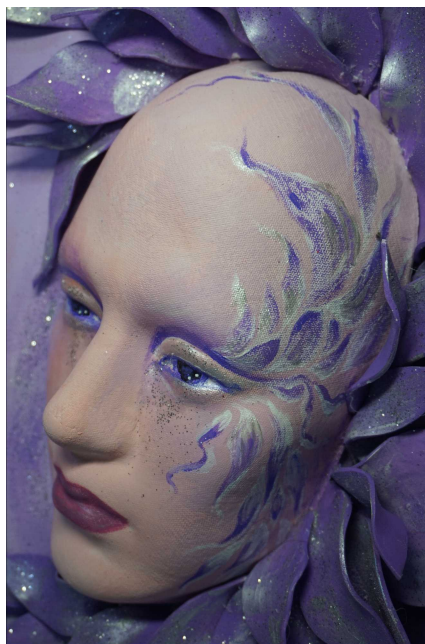
<표 19>는 ‘그리움 I’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이 작품의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값을 구한 결과는 S2040-R60B, S1030-R60B, S0520-R60B, S1015-R, S3050-R60B, S0510R60B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81> 그리움 I (아트마스크 디자인)



<그림 82> 작은 마스크 디테일



<그림 83> 모티브 디테일



<그림 84> 그리움 I 의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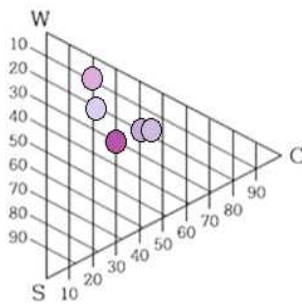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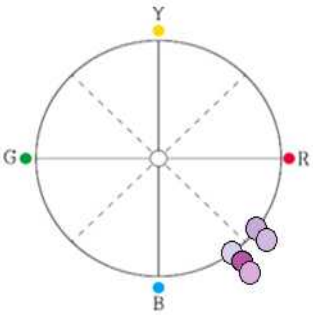
<그림 85> 마스크의 정면 디테일

2) 그리움Ⅱ(아트메이크업)

재료 ; 메이크업 기본 재료(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메이크업 도구(메이크업 브러시, 스펀지, 파우더 퍼프), EVA, 글리터,아크릴 물감,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모조 보석, 인조모 헤어 피스

‘그리움Ⅱ’는 성숙한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트메이크업이다. 신비로우면서 고혹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피부 톤을 밝게 표현했으며 화이트 펄을 사용하여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로 연출하였다. 전체적인 컬러를 바이올렛 컬러로 통일하여 차분함을 표현했고 다양한 질감의 제품(펄파우더, 글리터, 라이닝 컬러, 아쿠아컬러)과 에바로 제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하였다. 우수에 젖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속눈썹은 사용하지 않았고 눈 주위에 화이트 펄 파우더와 투명한 오팔 빛 글리터를 사용하여 눈물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인조모 헤어피스를 꼬기 기법으로 만들어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동시에 헤어 오브제를 고정하는 토대로 사용하였다.

색채	NCS 뉘앙스 분석표	NCS 색상 분포도
		
	● S2020-R60B ● S2040-R40B ● S2030-R40B	● S3030-R60B ● S1020-R60B

<표 20> 그리움Ⅱ의 NCS 색채 분석표

<표 20>은 ‘그리움Ⅱ’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값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S2020-R60B, S3030-R60B, S2040-R40B, S1020-R60B, S2030-R40B로 나타났다.



<그림 86> 그리움 Ⅱ(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그림 87> 그리움 II의 좌측면



<그림 88> 그리움 II (아트메이크업 상부)

4.2.3 작품 III <열망 I,II>

‘열망 I,II’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여름’속에 나타난 형태와 색채를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여름’은 1896년에 제작된 알폰스 무하의 대표적인 시리즈 장식 패널인 ‘사계’ 중의 한 작품이다. ‘사계’는 거장들의 회화들로부터 응용한 친근한 고전적인 주제를 묘사하여 4개 패널의 시리즈 안에 요정같은 여성들로 사계절을 의인화하였다. 각각의 패널에서 계절에 따른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순결한 봄, 정열적인 여름, 풍요로운 가을, 얼어붙은 겨울로 각 계절의 분위기를 담았다.

이 작품들 중 여름에 나타난 붉은 꽃을 모티브로 하여 여성의 관능적인 이미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붉은 꽃잎의 유기적인 곡선으로 여성다운 섬세함을 표현하고 강렬한 붉은 색으로 내면에 감춰진 열정을 나타내었다. 무하는 작품 속의 여인을 중채도와 증명도의 컬러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강렬한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남성 주체적인 입장의 여성적 관능미를 보여 주었지만 본 연구자는 붉은 색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여 당당하면서도 도전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 주체적 입장의 관능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응용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추출하여 아트마스크와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21, 22>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와 색채이며 이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이다.

응용작품 ‘여름’	작품 속 모티브	응용 모티브
		
	작품 속 색채	
	S 4050-Y80R	S 2030-Y40R
	S 2570-Y80R	S 7020-Y70R
	S 1080-Y70R	S 9000-N

<표 21>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일러스트	색채 제안
	S 2070-Y80R
	S 2070-Y70R
	S 4050-Y80R
	S 4040-Y40R
	S 1015-B50G
	S 2040-Y10R
	S 9000-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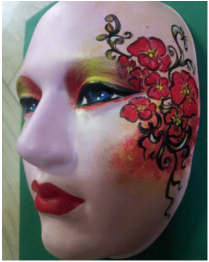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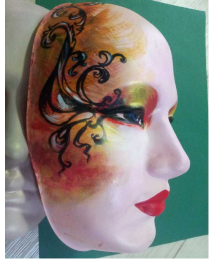
<표 22>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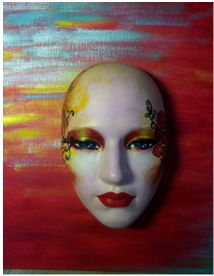
1) 열망 I (아트마스크)

재료는 플라스틱 마스크, 아크릴 물감, EVA, 글리터,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 줄 스펅글, 한지, 공예용 와이어, 스티로폼 볼

‘열망 I’은 로맨틱 이미지 중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아트마스크 작품이다. 여성의 내면에 감춰진 열망들을 붉은 꽃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타인에게 사랑받고픈 욕망을 붉은 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픈 욕망을 화려한 스펅글 모티브로 나타내었으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안을 줄 아는 따뜻한 감성을 부드러운 소재의 한지와 꽃잎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이 모든 욕망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23>은 ‘열망 I’의 작품 제작 과정이다.

작업 순서	작업 순서 내용
	1. 플라스틱 재질의 마스크에 아크릴 물감으로 피부표현과 눈 주위의 음영, 입술 표현을 한 후에 응용 모티브를 마스크의 좌측면 눈꼬리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얼굴의 입체적인 곡선과 조화되도록 주의 하면서 그려준다.
	2. 마스크의 우측면 눈꼬리 쪽도 모티브를 그려주었다. 같은 형태의 모티브를 사용하면 단조롭고 지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왼 쪽과는 다르게 선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3. 캔버스에 작품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이미지의 형태와 색채를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 캔버스위의 의도된 위치에 완성된 마스크를 부착하였다
	5. 만들어 높은 꽃잎을 스티로폼 볼에 붙여 꽃을 만들고 수술부분은 골드 글리터를 붙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6. 마스크 주위에 꽃 모티브와 한지, 스팅글 모티브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표 23> 열망 I 의 작업 순서 및 내용



<그림 89> 열망 I (아트마스크 디자인)



<그림 90> 열망 I 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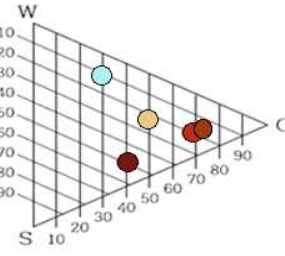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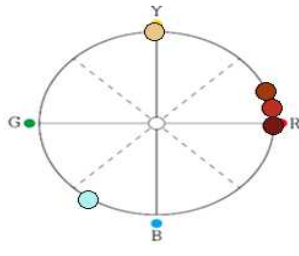
<그림 91> 열망 I 의 우측면



<그림 92> 마스크의 좌측 디테일



<그림 93> 마스크의 우측 디테일

열 망 I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값
		
	 S2050-Y  S5040-R  S2570-Y80R  S2570-Y90R  S1030-B40G	

<표 24> 열망 I 의 NCS 색채 분석표

<표 24>는 열망 I 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한 색채의 NCS 색채 분석의 결과는 S2050-Y, S5040-R, S1030-B40G, S2570-Y80R로 나타났다.

2) 열망Ⅱ (아트메이크업)

재료는 기본 메이크업 제품, 메이크업 도구,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인조 속눈썹, 글리터, 아쿠아 컬러용 브러시

열망Ⅱ는 무하의 작품 ‘여름’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를 응용하여 도전적인 여성의 관능적인 느낌을 메이크업과 오브제로 표현한 작품이다. 오브제의 화려함을 살리기 위해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배제하고 강렬한 색채 표현만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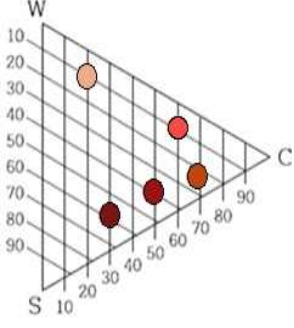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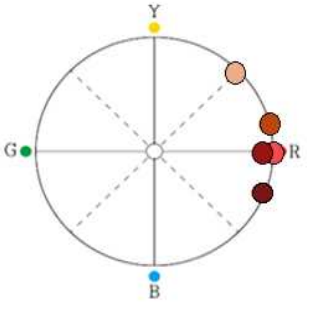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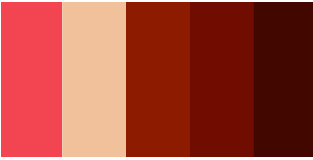


<그림 94> 열망Ⅱ-1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표 25>는 열망Ⅱ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1060-R, S6030-R30B, S1020-Y50R, S2570-Y80R, S4050-R로 나타났다.



<그림 95> 열망Ⅱ-2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열망Ⅱ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값
		
	 S1060-R  S4050-R  S2570-Y80R  S6030-R30B  S1020-Y50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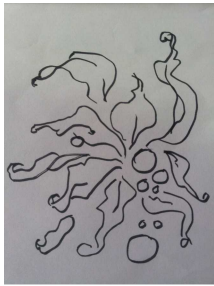
<표 25> 열망Ⅱ의 NCS 색채 분석표

4.2.4 작품 IV <풍요 I, II>

‘풍요 I, II’는 알폰스 무하의 장식 패널중 ‘과일’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고자 하였다.

구불거리며 물결치며 움직이는 것 같은 나뭇잎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 이미지는 노란색이 가미된 붉은 색을 주조로 황금빛과 갈색을 배색하여 풍성하고 윤택한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라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보조 색으로 사용하고 색감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자연스러움 속의 화려함을 추구 하였다. 나뭇잎 오브제의 재료로는 지(紙)끈을 사용하여 자연의 느낌을 강조하였고 스티로폼 볼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힌 열매 모티브로 볼륨감을 주어 무르익은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풍요 I, II는 로맨틱 이미지 중

자연적 이미지와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응용작품 '과일'	작품 속 모티브	응용 모티브
		
	작품 속 색채	
	S 4020-Y10R	S 2050-Y20R
	S 3560-Y70R	S 6020-Y60R
	S 4040-G80Y	S 9000-N

< 표 26 >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일러스트	색채 제안
	S 2050-Y50R
	S 2070-Y60R
	S 5020-G50Y
	S 5030-Y60R
	S 7020-Y40R
	S 9000-N

<표 27>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표 26, 27>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응용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와 색채 분석을 통하여 작품 제작의 디자인과 색채를 제안하고자 일러스트하여 작성한 도표이다.

1) 풍요 I (아트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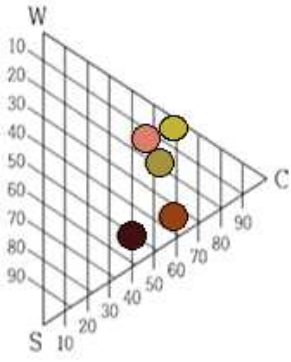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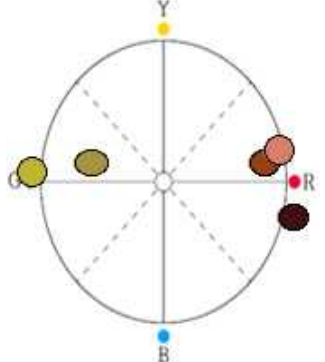
재료 ; 플라스틱 마스크, 아크릴 물감, EVA, 글리터,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 지끈(한지를 꼬아 만든 포장용 끈으로 꼬여진 부분을 푸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모티브로 사용 가능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감이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스티로폼 볼

작업 순서	작업 순서 내용
	1. 플라스틱 마스크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고 눈동자에 사실감을 부여하였다.
	2. 나뭇잎의 모티브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 넣어 머리카락 같은 효과를 주었다.
	3. 완성된 마스크를 채색한 캔버스에 고정시킨다.

	4. 지끈을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 꼬인 부분을 풀어주면서 다양한 형태의 나뭇잎 모양으로 만든다.
	5. 형태를 만든 지끈을 의도한 디자인대로 부착해주고 채색한 스티로폼 볼도 부착하여 풍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마지막에 황금빛 스프레이 락카를 필요한 부분에 도포하고 골드 글리터로 마무리하였다.

<표 29> 풍요 I 작업 순서 및 내용

<표 29>는 풍요 I 의 작품 제작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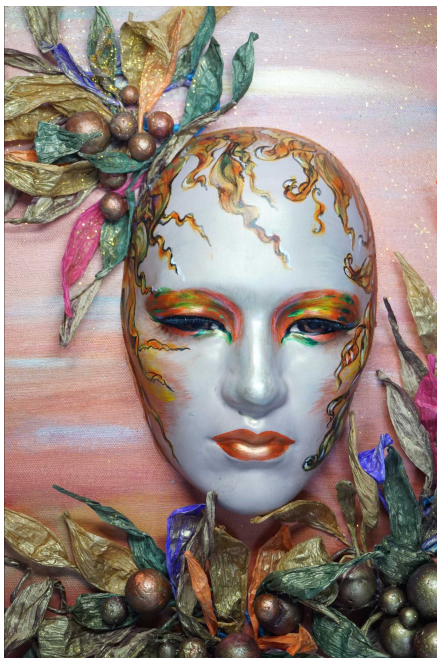
풍요 I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값
		
	 S1050-Y80R  S2060-G70Y  S3050-G60Y  S5040-R  S3560-Y70R	

<표 30> 풍요 I 의 NCS 색채 분석표

<표 30>은 풍요 I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1050-Y80R, S3560-Y70R,
S2060-G70Y, S3050-G60Y, S5040-R로 나타났다.



<그림 96> 풍요 I (아트 마스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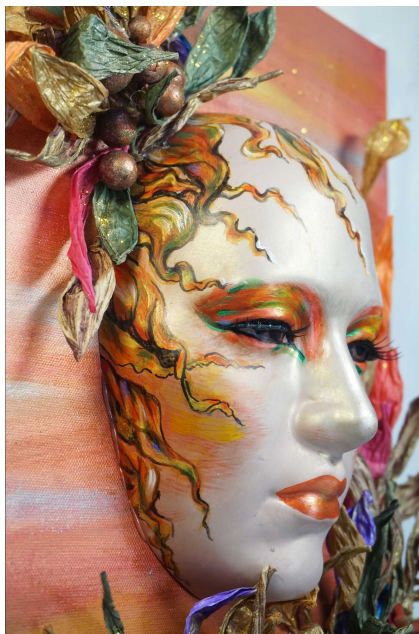
<그림 97> 정면 디테일



<그림 98> 풍요 I의 측면



<그림 99> 좌측면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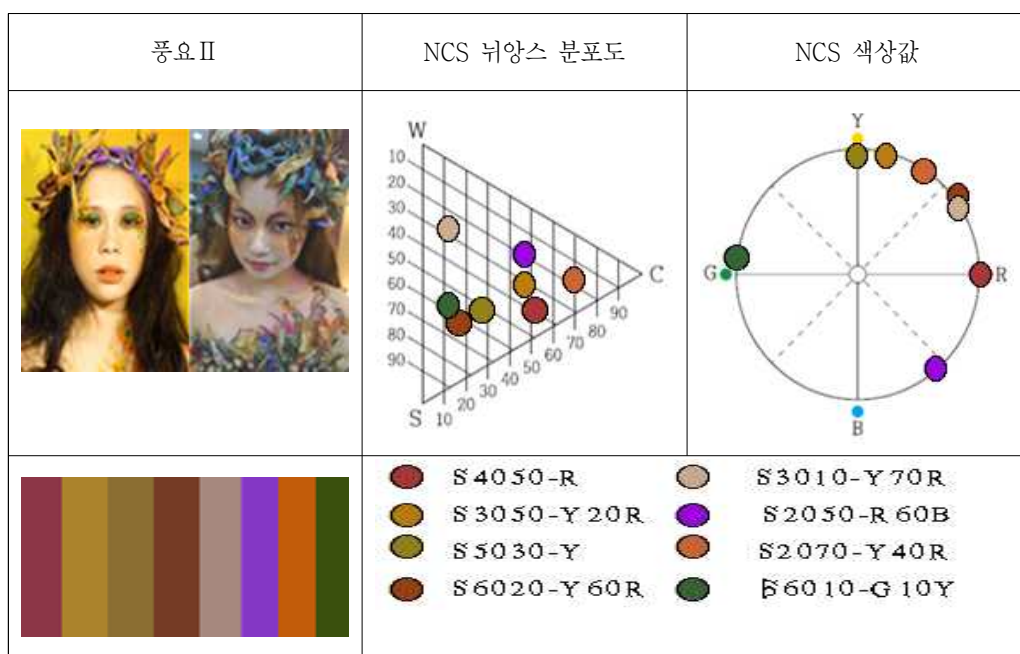


<그림 100> 우측면 디테일

2) 풍요Ⅱ(아트메이크업)

재료; 기본 메이크업 제품, 메이크업 도구,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인조 속눈썹, 글리터, 아쿠아 컬러용 브러시

풍요Ⅱ는 로맨틱 이미지 중 자연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아트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붉은 색이 가미된 노란색을 기본 색채로 하여 풍성한 가을의 느낌과 함께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풍요Ⅱ-1)과 강인한 자연의 아름다움(풍요Ⅱ-2) 두 가지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두 가지 이미지 모두 같은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나 메이크업 컬러나 페인팅 모티브를 다르게 표현하여 차별화 하였다.



<표 31> 풍요Ⅱ의 NCS 색채 분석표

<표 31>은 풍요Ⅱ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4050-R, S3010-Y70R, S3050-Y20R, S2050-R60B, S5030-Y, S2070-Y40R, S6020-Y60R, S6010

-G10Y로 나타났다.



<그림 101> 풍요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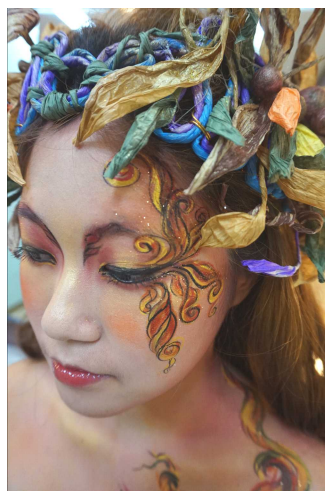
<그림 102> 풍요Ⅱ-1오른편
디테일



<그림 103> 풍요Ⅱ-1



<그림 104> 풍요Ⅱ-2



<그림 105> 풍요Ⅱ-2 좌측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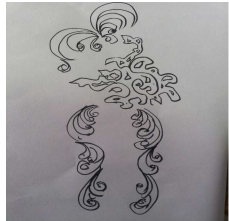
<그림 106> 풍요Ⅱ-2 우측
디테일

4.2.5 작품Ⅴ <꿈 I, Ⅱ>

꿈 I, Ⅱ는 알폰스 무하의 장식 패넬화 중 비잔틴 두상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비잔틴 두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 서양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알폰스 무하 작품의 대부분이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장식적인 표현이 강한 작품인데 이국적인 여인의 머리 장식에서 보여지는 보석과 귀금속의 디테일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하 작품 속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 ‘꿈’에서는 페인팅은 하지 않고 금속 소재의 모티브, 스펅글 모티브, 금사 레이스 모티브, 모조 보석 등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로맨틱 이미지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이다.

응용작품 ‘비잔틴 두상(금발머리)’	작품 속 모티브	응용 모티브
		
	작품 속 색채	
	S 3060-Y10R	S 4050-G50Y
	S 4050-Y30R	S 2050-R90B
		S 1510-Y80R

<표 32 >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 응용 모티브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응용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추출하여 아트마스크와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32, 33>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와 색채이며 이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이다.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일러스트	색채 제안
	S 2050-Y50R
	S 2050-R40B
	S 3030-B50G
	S 1030-R20B
	S 1005-B50G
	S 3060-Y10R

<표 33> 알폰스 무하 작품 속 모티브와 색채를 응용한 작품 일러스트와 색채 제안

1) 꿈 I (아트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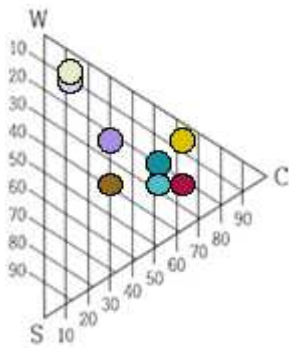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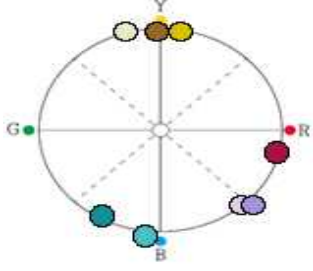
재료 ; 플라스틱 마스크, 아크릴 물감, EVA, 글리터, 아크릴 붓, 글루(실리콘 접착제), 글루건(글루를 녹여 접착하는데 쓰이는 도구), 금속 모티브, 스펅글 모티브, 금사 레이스 모티브, 모조 보석, 골드 스프레이 락카,

꿈 I 은 골드 컬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채 사용을 최소화하였는데 대신 중채도와 증명도의 붉은색과 파란색의 보색 대비로 화려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마스크의 상부는 파란색으로 채색하였고 하부는 붉은 색을 도

포하였다. 화려한 모티브와의 조화를 위해 사용하는 컬러에 골드 컬러를 섞어서 표면에 광택을 주었고 특히 눈 주위와 볼 부분의 높이 솟은 부분은 메탈릭(금속성) 골드 컬러로 입체감을 주었다.

완전히 건조된 마스크 위에 모티브를 배열하여 베네치아 마스크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배경이 되는 캔버스는 액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금속 꽃 모티브를 사용해 가운데에 타원형으로 형태를 잡은 후 파란색으로 채색을 하였고 나머지 바깥 부분은 핑크색으로 채색하였다.

건조된 캔버스위에 양감의 아라베스크 문양 효과를 주기 위해 글루를 사용하였고 골드 스프레이 락카를 도포한 후 다시 한 번 아크릴 물감으로 음영을 표현해 입체감을 주었다.

꿈 I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값
		
	 S1015-R60B  S1010-G80Y  S2050-B30G  S0560-Y10R	 S4030-Y  S3050-B10G  S2030-R50B  S2065-R20B

<표 34> 꿈 I의 NCS 색채 분석표

<표 34>는 꿈 I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1015-R60B, S1010-G80Y, S2050-B30G, S0560-Y10R, S4030-Y, S3050-B10G, S2030-R50B, S0560-Y10R로 나타났다.



<그림 107> 꿈 I (아트 마스크 디자인)



<그림 108> 꿈 I 우측면 디테일



<그림 109> 꿈 I 좌측면 디테일

2) 꿈 II (아트메이크업)

재료는 기본 메이크업 제품, 메이크업 도구,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인조 속눈썹, 글리터, 아쿠아 컬러용 브러시재료, 아크릴 물감, 글리터, 금속 모티브, 스팅글 모티브, 금사 레이스 모티브, 모조 보석을 사용하였다.

꿈II는 로맨틱 이미지 중 이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아트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페인팅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오브제 기법만을 사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미가 합쳐진 이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얼굴과 가슴 부분을 화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 톤을 고르게 표현하고 한톤 밝게 한 후 라이닝 컬러로 기본 음영을 표현한 후 파우더를 사용하여 유분을 잡아준다. 이때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주의하였다.

얼굴과 가슴 부분에 모티브를 부착할 때 메이크업제품이 두껍게 도포된 상태로는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본 메이크업을 마친 후 디자인 의도에 맞춰 모티브를 부착하였는데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듀오폴(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로 접착력이 우수해 속눈썹, 모조 보석 등 아트메이크업 시 모티브 접착을 위해 사용한다)을 사용하였다. 모티브 부착이 끝난 후 헤어 오브제를 착용시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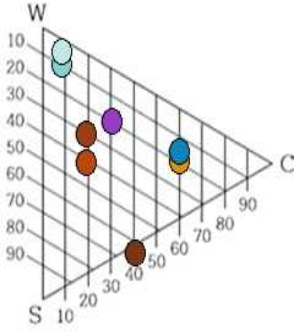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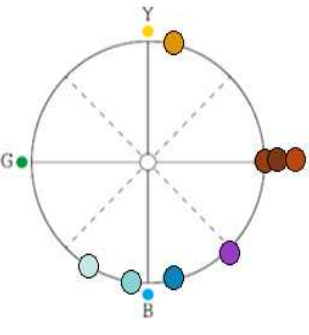
<그림 110> 꿈 II



<그림 111> 꿈II 우측면 디테일



<그림 112> 꿈II 좌측면 디테일

꿈 II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값
		
	 S3020-R  S1010-B10G  S2060-Y20R  S5040-R  S4020-R  S1010-B30G  S2060-R80B  S2030-R50B	

<표 35> 꿈 II의 NCS 색채 분석표

<표 35>는 꿈 II의 NCS 색채 분석표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육안 측색하여 NCS 색채 값을 구한 결과는 S3020-R, S1010-B10G, S2060-Y20R, S5040-R, S4020-R, S1010-B30G, S2060-R80B, S2030-R50B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회화 속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여 작품화 하고자 하였다. 작품 계획과 제작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한 두 사람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여 그들의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과 작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공통적인 작품의 주제는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여성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표현하던 시대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존감, 고귀함을 표현하였다. 이에 이들 작품 속 여성 이미지의 형태적, 색채적 특징을 통하여 로맨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마리 로랑생 작품 속에서는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우아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고 알폰스 무하의 작품 속에서는 관능적인 이미지, 자연적인 이미지, 이국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위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다섯 가지 로맨틱 이미지를 주제로 본 연구자의 임의로 응용 작품을 선정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색조의 사용, 소박하고 유연한 묘법과 담홍, 담청, 회백색의 유려하고 감미로운 색채 배합으로 꿈꾸는 듯한 소녀와 섬세한 여성미를 표현한 마리 로랑생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로맨틱 이미지 중 사랑스러운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의 아트메이크업 4작품을 제작하였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모티브, 간결한 선 처리, 꽃과 잎새, 무늬와 기호들의 구조 속에 수려하게 짜여 들어진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무하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한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관능적인 이미지, 자연적인 이미지, 이국적인 이미지의 아트메이크업 7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작품Ⅰ ‘순수Ⅰ,Ⅱ’는 마리 로랑생의 작품 ‘꽃병’과 ‘초상화’에 표현된 색채 레이어 기법과 색채적 특징을 응용하여 꽃의 형태를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그 위에 응용 모티브 즉 에바로 만든 꽃을 중첩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순수Ⅰ’에서는 로랑생 특유의 부드러운 색감을 살리기 위해 종이 재질의 마스크를 사용하였는데 물감의 발색과 고정력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마스크보다 도색작업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이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염려하였던 약한 내구성과 견고성은 피복력이 우수한 아크릴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종이 재질의 마스크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엔 손색없는 재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로랑생 특유의 화사한 색채와 꽃, 소녀의 이미지는 로맨틱 이미지 중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주로 연습용으로 사용되었던 종이 재질의 마스크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린다면 훌륭한 작품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2. 작품Ⅱ ‘그리움Ⅰ,Ⅱ’는 마리 로랑생의 ‘꽃’과 ‘키스’의 색채를 중심으로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비슷한 톤끼리의 색채 배색이 주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꽃’에서 모티브를 추출하고 다양하게 변형하여 방향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평면적인 특징인 강한 로랑생 작품의 이미지에 치중하지 않고 연구자의 방식을 가미하여 입체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하였다. ‘꽃’에서 볼 수 있는 질감에 의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톤의 보라색과 에바 소재의 꽃잎을 오브제로 사용하였는데 크기와 형태에 변화를 주어 로랑생 특유의 유연한 곡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3. 작품Ⅲ ‘열망Ⅰ,Ⅱ’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여름’에 나타난 붉은 꽃과 식물의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하여 여인의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붉은 꽃을 주 모티브로 하여 에바, 한지, 스펅글,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오브제를 제작하였고 이를 적절히 배치함으로 무하 작품의 특징

인 유기적인 곡선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열망Ⅰ’에서는 식물과 넝쿨의 선적인 요소와 면적인 요소인 꽃 모티브를 핸드 페인팅으로 표현하였는데 오브제 기법만을 사용한 ‘열망Ⅱ’보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작품Ⅳ ‘풍요Ⅰ,Ⅱ’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 ‘과일’속 나뭇잎과 과일 모티브를 응용하여 풍요로운 가을 느낌과 자연친화적인 여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핸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포장용 지끈을 이용한 나뭇잎 오브제는 자연의 소재인 종이를 이용하였기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지끈은 사용하는 길이와 꼬인 부분을 푸는 정도에 따라 선적인 요소와 면적인 요소를 표현할 수 있고 컬러링도 가능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연구한다면 아트메이크업 오브제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같은 오브제를 사용하고 모델과 메이크업 컬러, 응용 모티브를 다르게 표현하여 순수하고 여린 자연의 이미지와 강인하고 성숙한 여성의 두 가지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메이크업 컬러와 모티브와 함께 모델의 고유이미지도 작품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작품Ⅴ ‘꿈Ⅰ,Ⅱ’은 알폰스 무하의 ‘비잔틴 두상(금발머리)’에 나타난 비잔틴 풍의 머리 장식을 모티브로 하여 화려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하의 작품에서 회화적 기법으로 표현되었던 머리 장식과 배경에서 모티브를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오브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금속 모티브와 인조 보석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고 금사로 제작된 아르누보 문양의 레이스를 사용하여 의도하였던 이국적인 이미지의 로맨틱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의 회화 작품 속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형태적 특징과 색채적 특징을 응용 및 재구성하여 아트 마스크와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와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접목하고 아트 마스크와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을 시도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마리 로랑생과 알폰스 무하에 대한 문헌 정보가 부족하여 선행 연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두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그들 작품 속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로맨틱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순수 예술 작품의 조형적, 색채적 분석을 통한 이미지 분석과 작품 응용 연구가 지표가 되어 아트 메이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을 적용한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E.H 콰브리치. 백승길, 이종승 역. (1999). 『서양 미술사』 . 도서출판예경, 536.
-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 컬처그라피, 221-228.
- 김현진. (2015) 『알폰스 무하 작품의 미적 미메시스를 통한 웨딩 헤어 장신구 디자인』 . 석사 학위 논문 . 서경대학교
- 도널드 레이놀즈, 전해숙 역. (1991). 『19세기의 미술』 . 예경 출판사. p,116
- 도병훈. (2012). 『청소년을 위한 서양 미술사』 . 두리미디어. p,70-73.
-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 (1995). 『미술과 시지각』 . 미진사, 6.
- 마리 로랑생, 이종선 역. (1992). 『밤의 수첩』 .한빛, 3-5, 167.
- 마스크 디자인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 문선영. (2005)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의 아르누보 양식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 홍익대학교.
- 빌리 하스, 김두규 역. (1994). 『세기말과 세기초: 벨 에포크』 . 까치, 12.
- 서양 미술사학회. (1997) 『서양 미술사학회 논문집』 . 시공사, 31-33.
- 수잔나 파르취, 홍진경 역. (1999). 『한 눈에 보는 서양 미술사: 당신의 미술관2』 . 현암사
- 승례문편집부. (1991). 『미술사전』 . 서울 승례문
- 엘러스테어 덩컨, 고영란 역. (1999). 『아르누보』 . 시공사, 7.
- 예술의 전당. (2013)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와 유토피아전』 .
- 우현지. (2015) 『알폰스 무하 회화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 월간미술. (1984) 『세계미술용어사전』 . 중앙일보사.
- 웬디 벅렛, 광동훈 역. (1997). 『명화 이야기』 . 디자인 하우스, 278.
- 윤현섭. (1995). 『예술 심리학』 . 을유문화사, 61.
- 이동민. (2013).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 재원, 48, 57-64.
- 이두리. (2013)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석

사 학위논문 . 경기대학교

이승은. (2012)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 한성대학교

일러스트 편집부. (2015) 『ILLUST』 . 월간일러스트, 14-17.

임석재. (1995). 『추상과 감흥: 비엔나 아르누보 건축Ⅱ』 . 문예마당, 171.

임영방. (1985). 『미술의 길』 . 지학사

장문호. (1986). 『서양 미술사』 . 형설 출판사

정금희. (1998). 『19세기의 서양 회화사』 . 서울맥, 104.

정수안. (2015)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여성 이미지 표현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 세종대학교

정은선. (2007) 『로맨틱 JEAN 패션디자인 연구』 . 석사학위논문 . 이화

여자대학교

제윤. (1999)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최태만. (2008). 『미술과 사회적 상상력』 . 국민대학교출판부, 52-54.

플로라 그루, 강만원 역. (1994). 『사랑에 운명을 걸고』 . 까치, 19-31.

한민호. (1984) 『아르누보 조각의 특성과 작가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서울

대학교, 10.

홍소영. (2001) 『알폰스 마리아 뤼사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 국외문헌

Marchesseau d. Publisher (1997) ; 『Laurencin Marie』 . Fondation

Pierre Gianadda, 5, 22.

西村和子 ; 『모딜리아니와 마리 로랑생』 . 일본 브리지스톤 미술관, 3-4.

3. 기타 자료

<http://blog.naver.com/haewon009?Redirect=Log&logNo=110181882753>
<http://blog.naver.com/hope5867?Redirect=Log&logNo=90195777299>
<http://blog.naver.com/irgendwo?Redirect=Log&logNo=10008907880>
<http://blog.naver.com/kdr1204?Redirect=Log&logNo=220070877126>
<http://blog.naver.com/mido22kr?Redirect=Log&logNo=220434334975>
<http://blog.naver.com/mido22kr?Redirect=Log&logNo=22043433497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ciel1202&logNo=22045771395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sson_&logNo=220452010296
<http://blog.naver.com/wjdwjd9096?Redirect=Log&logNo=130174794874>
<http://cafe.naver.com/artsky201/782>
<http://cafe.naver.com/leezm/1650>
<http://cafe.naver.com/rioatelier/10729>
<http://egloos.zum.com/shaind/v/5618633>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2177&leafId=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8&contents_id=30002
<http://philosophy78.blog.me/220281261307>
<http://philosophy78.blog.me/220281261307>
http://press.sac.or.kr/_press/000-2013/20130711%20Ex_mucha/Mucha%20Pre/Mucha%20Pre.ht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6459&cid=46702&categoryId=467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39&cid=46720&categoryId=46838>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D%8F%B0%EC%8A%A4_%EB%AC%B4%ED%95%98

ABSTRACT

A study on the Art Make-up Design applying romantic
image of Marie Laurencin & Alfons Mucha's works

Lee, Su-Jeo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rtistic designs of art mask and art make-up. Marie Laurencin and Alfons Mucha were rid of period majority that expressed women just sexual object and distorted sincerity of women. Rather they expressed beauty, dignity, nobility of women with their own personality. In order to apply 6 romantic image of their paintings into art mask and art make-up designs, selecting works that suitable for this study, analyzing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color works,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NCS color system, and finding romantic image expressed those works out. Whereat, finding 'Adorable', 'Elegant', 'Dreamlike' image out from Marie Laurencin's works and discovering 'Sensual', 'Decorative', 'Exotic' image from Alfons Mucha's works. Expressing Marie Laurencin and Alfons Mucha's Romantic images, using Marie Laurencin's fancy, dreamlike color, shape from overlapping of color

excluded line, and Alfons Mucha's abundant, decorative patterns, organic, splendid curved line includes flower and plant as motives.

Re-designing extracted motives from their paintings, usage of hand painting and objet of various materials have been appropriate to propose designs of art mask and art make-up.

Based on that,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seeking methods that enhance artistry and completeness by integrating objet of various materials and image of art works and applying that to art mask and art make-up. Plus, producing different type of art works differ in object of expression with same image. And hopefully, this form of study: analyz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color variety; techniques from art works, to be utilized. Furthermore, this study leads to the next studies on material usage and technical application which develop an intensive styles of art mask and art make-up.

【Key Words】 Marie Laurencin, Alfons Mucha, Art Make-up,
Painting, Romantic image